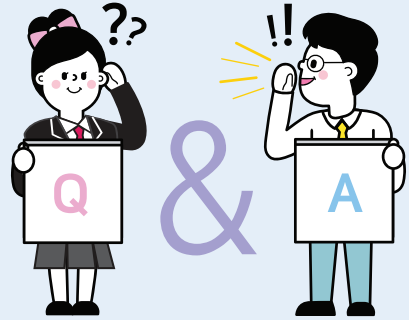


|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

학생부종합전형

101

가지
이야기





1. 인용하실 때는 꼭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교육업체의 무단사용을 절대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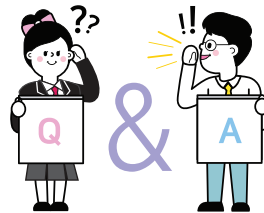
|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

학생부종합전형

101

가지

이야기



Greetings

학생부종합전형, 학생 · 학부모 · 교사가 묻고 입학사정관이 답하다.

학생부종합전형 준비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의 특성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성평가가 도입된 지 어언 10여년 학교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대비가 이뤄져왔고 매년 더 발전해왔으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핀다는데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의 지름길’이라는 인식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학은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자 노력한 학생을 찾아 왔습니다. 이런 한 가지 명제에도 불구하고, 학생 · 학부모, 심지어 교사까지도 여전히 학생부종합전형은 누가 합격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이런 대입수요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국대 · 경희대 · 연세대 · 이화여대 · 중앙대 · 한국외대 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대입수요자의 요구 분석을 통한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입수요자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대학별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학생 · 학부모 ·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조사하였고,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이 그동안 학생과의 상담과정에서 자주 듣던 질문들을 모아 그 중 연구진이 질문 빈도가 많은 질문 중 101가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는 Q&A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학생부종합전형 제도 및 정책, 서류평가 자료, 서류평가 요소, 면접, 전형결과 및 기타 5가지로 질문을 유형화하고 대교협의 대입상담교사단과 대학 입학관계자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답변을 작성하였습니다.

“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이런 대입수요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국대·경희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 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대입수요자의 요구 분석을 통한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 책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정리한 수준으로 개별 대학의 특성을 모두 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특성상 대학마다 학과마다 선발 인 재유형과 선발방식도 달라 답변의 표준화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개별 대학에 직접 확인하기를 권장합니다. 연구진은 미력하나마 대학 입시 준비에 애쓰는 수많은 학생·학부모·교사들과 대입전형을 운영하는 대학 입학관계자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2019년 2월

연 구 진	6개 대학	입학사정관
연구책임자	경 희 대	임진택
공동연구원	건 국 대	이정림 김유겸
	경 희 대	박소연
	연 세 대	문서진 이혜린
	이화여대	안정희
	중 앙 대	차정민 채송화
	한국외대	이석록 김민경

Contents

PART 1. 학생부종합전형 제도 및 정책

Q01. 국가의 교육정책이 바뀔에 따라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0
Q02. 학생부종합전형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11
Q03. 국가교육정책이 변화하는데 수시 정시 선발 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12
Q04. 대입전형에서 각 전형별 선발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3
Q05.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알고 싶어요.	14
Q06.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어떤 고등학교를 다녔는가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15
Q07. 내가 학생부종합전형 인재상에 적합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6
Q08.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17
Q09.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18
Q10.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제출서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19
Q11. 왜 고교등급제가 문제가 되나요?	20
Q12. 학생부종합전형 시행과 함께 3불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21
Q13. 학생부위주전형 안에는 어떤 전형들이 있고, 그 전형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2
Q14.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고 싶어요.	23
Q15. 고교-대학 연계활동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까요?	24
Q16.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하여 고교교육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는지 평가자의 관점에서 알려주세요.	25

PART 2. 서류평가: 평가자료

Q17.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28
Q18.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29
Q19. 학교 간 교사 간 기록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나요?	30
Q20. 학교생활기록부는 분량이 많을수록 좋은가요?	31
Q21. 같은 학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32
Q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점점 간소화되면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33
Q23. 학교생활기록부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34
Q24. 학교생활기록부의 3학년 1학기에 작성된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35
Q25.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요?	36
Q26.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37
Q27.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기재된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38
Q28. 진로희망사항이 일관되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39
Q29.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40
Q30. 동아리활동을 평가할 때 정규동아리와 자율동아리 중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활동한 동아리 개수가 많을수록 좋은가요?	41

Q31. 봉사활동은 학교 봉사 외에 개인 봉사도 중요한가요?	42
Q32. 독서활동에서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전공 관련 독서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요?	44
Q3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45
Q34.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성취도 수준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46
Q35.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47
Q36. 학교생활기록부가 부족해도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합격할 수 있나요?	48
Q37.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49
Q38. 자기소개서의 작성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50
Q39.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51
Q40. 자기소개서 문항별 작성 팁을 알려주세요.	52
Q41. 자기소개서에 다양한 활동 내용을 작성하는 것과 지원한 학과와 관련한 활동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나요?	53

PART 3. 서류평가 : 평가요소

Q42.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서류평가를 진행하는지 궁금해요.	56
Q43. 평가요소별로 반영비율이 궁금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요소가 있나요?	58
Q44. 서류평가 시, 교과와 비교과를 구분해서 평가하나요?	59
Q45. 각각의 평가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어느 항목과 연결되나요?	60
Q46. 하나의 경험이 하나의 평가요소로만 평가되나요?	61
Q47. N수생, 검정고시, 해외고 출신은 서류평가에서 불리한가요? 평가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지 궁금해요.	62
Q48. 우리 학교는 상대적으로 내신 등급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학교별 차이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63
Q49.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인문(자연)계열 학생이 자연(인문)계열로 교차지원이 가능한가요? 교차지원 시 불리한 점은 없나요?	64
Q50. 소인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 공동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한 것이 평가에서 유리한가요? 이수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어떻게 평가되나요?	65
Q51. 주요 교과목 이외에도 예체능, 기술·가정, 제2외국어 과목의 성적도 평가에 반영되나요?	66
Q52. 성적이 상승세여야 좋다고 들었습니다. 하락하거나 비슷한 성적을 유지한 학생은 학업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가요?	67
Q53. 학업역량은 오직 내신 등급으로만 평가하나요?	68
Q54. 내가 가고 싶은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고등학교에서는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요?	69
Q55. 전공 관련 활동의 개수가 많아야 전공적합성 평가에 유리한가요?	70
Q56. 공과대학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과학 선택 교과목의 이수 여부가 전공적합성 평가에서 큰 영향을 미치나요?	71

Contents

Q57. 전공 관련 내신 성적이 낮은 편인데, 전공적합성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72
Q58. 학교에서 전공 관련한 탐구활동을 했어요.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73
Q59. 평가요소로써 인성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74
Q60. 협업 능력은 어떤 활동으로 평가 받을 수 있나요?	75
Q61. 무단지각 · 결석 · 결과 등은 인성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76
Q62.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좋은 평가를 받나요?	77
Q63. 주도적인 활동이 꼭 필요한가요? 자기주도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78
Q64. 임원을 한 경험만 있어야만 리더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79
Q65. 창의적 문제해결력이란 무엇인가요?	80
Q66. 경험의 다양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81

PART 4. 면접

Q67. 수험생에게 면접은 정말 부담되는데요.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84
Q68.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제시문 활용 면접이 가장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면접 폐지 혹은 서류확인면접만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85
Q69. 제시문 활용 면접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무엇이며,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면접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86
Q70.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인성면접, 심층면접, 서류확인면접 등 대학과 전형에 따라 면접방식이 다양한데, 가장 일반적인 면접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88
Q71.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지원학과와 관련된 이론이나 지식 등도 묻는지요?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지원학과 관련 심화활동 기록이나 교육과정 이수 기록이 있을 때, 전공과 관련된 심화된 질문을 하나요?	90
Q72.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등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91
Q73.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서 주로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92
Q74. 서류확인면접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 중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질문하나요?	94
Q75.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은 3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책을 읽은 지 오래 되어서 책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면접을 대비해 책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면접관이 얼마나 자세하게 묻나요?	95
Q76. 면접에서 대학이나 지원학과 인재상과 관련된 질문도 하는지요?	96
Q77.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던데요. 주로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97
Q78. 평소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력이 부족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면접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98
Q79.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관 구성이 궁금합니다. 몇 명의 면접관이 평가를 하고, 서류평가를 담당한 입학사정관이 면접에 들어오나요?	99

Q80.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00
Q81. 면접관(입학사정관, 교수)이 여러 명일 때, 학생 평가가 서로 다를 경우 점수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102
Q82. 일반적인 면접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출제문항 면접의 경우 문제를 보는 시간을 별도로 제공하나요?	103
Q83.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으로 합/불 결과가 달라지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104
Q84. 면접에서 나쁜 평가를 받을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또한 면접에서 지원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06
Q85.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년도 면접 기출문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107
Q86. 학생부종합전형에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된다고 들었습니다. 면접 때 교복을 입어도 되나요? 면접 중 실수로 다지고 있는 고교명이나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108
Q87. 면접 보러 갈 때 휴대폰을 가지고 가도 되나요? 대기실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휴대폰 벨이 울리면 부정행위자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109
Q88. 면접을 보러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수험표나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면접을 보지 못하나요?	109

PART 5. 전형결과 및 기타

Q89.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내신성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112
Q90.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모집단위별(학과 · 학부별)로 내신성적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나요?	113
Q91. 학교의 상황에 따라 대회, 행사, 교육과정 간 차이가 발생하는 데, 이런 경우들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114
Q92. 학교에서 제공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115
Q93.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고교프로파일이 어떻게 활용되나요?	116
Q94. 고교의 전년도 입시결과가 출신 고등학교의 후배들 서류평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117
Q95.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고등학교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118
Q96.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출신 지역별로 보이는 특징이 있나요?	120
Q97.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사례를 공개해주실 수 있나요?	122
Q98.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123
Q99. 유사도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24
Q100. 수시모집 지원 시, 한 대학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다른 대학에 똑같이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126
Q101.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127

학생부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



PART 1

학생부종합전형 제도 및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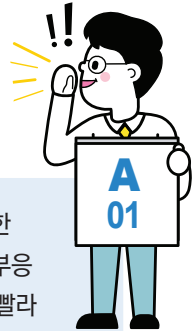
| 세부유형 |

국가교육정책과 대입	Q01 ~ Q04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Q05 ~ Q13
수능최저학력기준	Q14
고교-대학 연계	Q15 ~ Q16



Part1. 국가교육정책과 대입

국가의 교육정책이 바뀔에 따라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공교육은 국가가 총괄하여 진행합니다. 국가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에 대비해야하는 국가의 교육정책도 민감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교육과정의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교과목 내용을 잘 배우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교과지식의 습득을 뛰어 넘어 지식을 활용하고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변화 요구를 담아내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변화하는 교육과정 목표에 부합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교육과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평가, 그 중에서도 대입 정책에까지 이어집니다.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는 분리되지 않고 순환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대입정책에서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4차 산업 시대를 주도해야 할 미래의 인재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가르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답 찾기 식의 시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를 넘어섰습니다. 단어를 하나 더 외우고 문제를 더 많이 풀 수 있는 능력이 미래에는 경쟁력이 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과목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실제 어떤 수행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의적 사고’능력은 기계가 인간을 넘어설 수 없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수업시간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고 ‘왜’라는 물음에서 배움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평가영역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대입제도의 변화는 사회 변화는 물론 교육과정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입에서의 변화주체가 등장할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혼란과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대입만큼 민감한 주제가 없기 때문이며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나만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입제도 운영상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에 휘둘리지 말고 교육정책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본에 충실한 학교생활을 지속해 나가기를 조언합니다. 대입제도의 변화가 공교육의 교육목표와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 진학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하여 얕은 전략을 고민하기 보다는 교육의 기본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점을 잊지 맙시다.



Part1. 국가교육정책과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 전형의 미래가 어떻게 나아갈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성, 평가방법, 앞으로의 전망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성** :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교육의 성공적인 이수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된다고 해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방식이 달라지거나 평가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진 교육과정에 따라 어떠한 교육경험을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이나 평가방식 등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교육의 과정을 3년간의 연속된 경험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개념은 동일합니다.

•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법** :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성적인 종합평가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은 수능점수 또는 내신 석차등급과 같이 정량화하는 평가입니다. A학생의 수학교과목 내신 성적이 3등급인 경우, 정량평가 방식으로는 숫자 3으로 계산할 뿐, 다른 변인을 평가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이 학생의 원점수와 집단평균, 이수자 수, 편차 등을 고려하여 3등급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에서 보여준 학업태도, 교과목에 대한 관심과 지식의 활용능력, 수행평가의 우수성 등을 평가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우수성을 진단하는 보다 종합적이고 선진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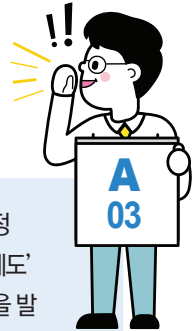
• **학생부종합전형의 미래 전망** : 학생부종합전형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신뢰도 문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한 교사변인의 문제 등 공정성 문제가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평가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교사의 평가권한이 학생, 학부모에게 잘못 행사되는 문제 등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기록내용을 표준화, 간소화하고 절차적 공정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본래 취지와는 별개로 위법적인 일들이 반복된다면 정책을 변형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을 평가하는 다면적인 평가 방법으로서 그 의미가 인정되고 있는 만큼**, 정시 선발비율 확대 등의 이슈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학생부종합전형의 폐지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실천하는 곳에서 비교육적인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 모두가 경계심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며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Part1. 국가교육정책과 대입

국가교육정책이 변화하는데 수시 정시
선발 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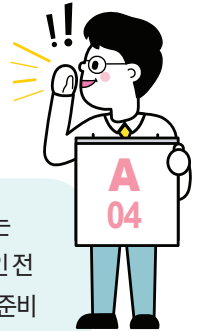
대입전형의 학생선발은 대학자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가교육의 정책방향 내에서 조율될 수 있다는 점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2018년 8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4가지 의제 중, 정시 수능위주 전형 선발비율을 30%이상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발 비율에 대한 권고는 대학의 자율성과는 대치되는 측면이 있으나 수시선발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여 중재안을 마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경험을 과정중심으로 평가하는 수시모집 선발 비율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능점수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 비율을 축소해 왔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수능시험을 통해 우수성을 평가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진입 경로를 축소하여 예전보다 대학진학이 힘들어졌다는 목소리가 사회문제로 불거진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시 대학진학을 계획할 경우 수능전형이 유일한 경로일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줄어들어 재도전이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거쳐 이와 관련한 문제가 논의되었고, 수시와 정시 선발비율을 7:3으로 권고한 것은 현실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회 의견에 좌우되어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국민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전형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선택지를 보장하고 전형별로 균형 있는 학생선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별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시 정시의 선발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전형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전형별 입학생의 추수 분석 결과에 따라 전형 시기별 선발비율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교와의 연계를 통한 학생선발에 의미를 두는 대학의 경우, 수시선발을 통해 입학정원을 확보하려는 대학의 경우에는 정시보다는 수시선발에 비중을 두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시 수능위주 전형의 선발비율을 높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대학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정시 선발비율을 유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로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추후 학점주의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과정선택의 경로를 정성적으로 평가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수시선발에 더 적합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학생선발 방식이 무엇이여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시대에 대처할 인재 양성에 필요한 대입선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하여 교육적인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Part1. 국가교육정책과 대입

대입전형에서 각 전형별 선발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현재 수·정시 모집시기별 4+2 개의 전형유형을 활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전형으로는 수시모집(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 정시모집(수능, 실기)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전형별 선발비율은 대학 자율로 결정됩니다. 다만,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의 경우,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수혜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선발비율을 줄여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 분	전형유형		주요전형요소
수 시	학생부	교과	• 교과중심
		종합	• 비교과, 교과, 면접 등(자기소개서, 추천서 활용 가능)
	논술위주		• 논술 등
	실기(실적)위주		• 실기 등(특기 등 증빙자료 활용 가능)
정 시	수능위주		• 수능 등
	실기위주		• 실기 등(특기 등 증빙자료 활용 가능)

그밖에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은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대학 자율로 결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규칙이나 방향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각 대학은 입학생의 성취도에 관한 추수지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전형별로 성취도 수준이 어떠한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보이는 학생들의 입학전형이 무엇인지, 각 전형별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전형별 선발비율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 내 모집단위 별로 전형별 선발비율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과특성상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을 선호하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 국·공립대학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높고, 서울·수도권 주요대학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각 대학이 지원자 특성과 재학생 성취에 관한 분석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고교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에 따라 전형별 선발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과학습에 대한 기록이 석차등급으로 기술되는지, 혹은 성취등급과 같이 절대평가 기록으로 변경되는지에 따라 전형 간 선발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이수한 모든 교과등급의 점수를 정량화하여 서열화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정량화가 어려워지게 되면 전형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학마다 전형별 선발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art1.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알고 싶어요.



• **다른 전형과의 차이점** : 점수위주 학생선발에서는 오직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합불이 결정됩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점수가 과연 학생의 능력이나 잠재력, 발전가능성 등의 정보를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이 과연 수학교과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를 잘 풀 것이라는 가정은 가능하지만 수학이라는 학문의 구조를 어느 정도 맛보았으며 어떤 의미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학공부에 임하여 어떤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 **학생부종합전형의 목적** :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치로는 비슷하게 묘사될 수 있지만 실제 너무나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가능성과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한 종합적인 평가제도입니다. 수치로 드러나는 교과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학업능력 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태도, 도전정신, 열정과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방식** :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방식은 논술성적이나 수능 점수와 같이 단일한 평가정보를 활용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교과 내신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전형에서는 학생이 가진 리더십역량, 대인관계 및 인성, 공동체 의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종합평가의 의미는 개별적인 점수 합산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지원자의 역량에 대한 해석에 있습니다. 또한 고교 3년간의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내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전형과 차별됩니다. 과거 점수위주의 선발방식에서는 고교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지 않아도 시험점수만 잘 관리하면 합격할 수 있었고, 매우 미미한 점수 차에 의해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었습니다.

• **학교교육에 미친 영향** :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고교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학교 밖이 아닌 학교 내에서의 교육과정에 집중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특성을 살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교과담당 선생님들은 수능과 내신 위주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서 토론과 토의가 활성화되는, 학생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의 수업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고교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근거가 바로 이러한 변화입니다.

• **관련 정보 검색방법** : 학생부종합전형에 관련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또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모집요강과 전년도 입시결과, 논술이나 면접 기출문제,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각 대학별 수시 및 정시 모집요강에도 전형별 특징에 대한 안내 및 평가개요에 관한 설명이 있으니 참조할 수 있습니다.



Part1.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어떤 고등학교를 다녔는가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가 특목고와 같이 특정 고등학교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문 제제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학교활동을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일반고에 비해 특목고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상의 자율권한이 많은 학교가 특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전문교과를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고교의 경우 교과심화활동을 연계할 수 있으며 깊이 있는 탐구활동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서류평가에 유리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학교가 처한 환경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성취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교를 서열화하여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는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고교를 서열화하는 것은 교육내용의 질적인 판단 없이 특정 학교에 유리하도록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자의 우수성을 진단하는 항목이 고교교육과정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개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와 학교프로파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무 연관도 없는 인근 학교의 우수프로그램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교육프로그램 내에서 지원자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고교교육과정에 대한 맥락적인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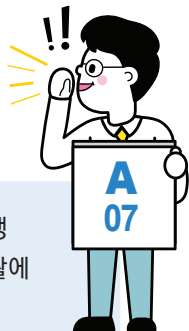
고교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별다른 의욕 없이 몇 개의 학교활동에 참여한 것이 전부인 학생과, 학생과 교사 수가 적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열정을 다해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분명한 성장을 보여주는 학생이 있다면, 후자의 학생이 더 우수하게 평가됩니다. 곧, 고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해당 고교에서 성장을 이루어낸 학생에 대한 평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재학하고 있는 고교가 명성이 낮다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우리 학교가 대학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가 마련해 놓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취를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이 모든 상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고교간의 상대적인 유·불리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Part1.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내가 학생부종합전형 인재상에
적합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학생부종합전형은 전형 명칭에서 내포하고 있듯이 고교 3년간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하고 고교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우수하게 평가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되면서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학생부종합전형에 선발한다는 생각이 확산되어 대학의 ‘인재상’, 학과의 ‘인재상’ 등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인재상은 대학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에게 기대할 수 있는 특성이며 입학단계에서는 대학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소양을 중요시합니다.** 간혹 특정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경험을 쌓기 위하여 학교 밖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범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지역 교육봉사를 해야 한다, 의학계열을 지원하려는 학생은 병원에서 도우미 봉사를 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학년별로 진로희망이 달라져서 활동유형이 맞지 않아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또한 특정대학 또는 모집단위가 가진 인재상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고등학교에서 완성되어야 할 내용으로 결정된 것이며 대학에서의 전공공부를 위한 기초교육을 미리 담당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완성해야 하는 핵심역량을 갖추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그 토대 위에 대학에서의 교육경험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고등학교 기간 동안 희망하는 학과에 맞추어 열심히 진행한 것이라고 자랑하는 활동들도 막상 이후의 대학공부에 비춰보면 호기심 수준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인지 궁금하신가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인지 궁금하신가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키워야 하는 핵심역량을 잘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인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Part1.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자료 관련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학생이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평가자는 평가자료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각각의 평가 반영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지원자의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과성적이나 교과 관련 활동 내용 외에도 지원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1번 항목이나 학업적인 우수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노력 및 고등학교 내에서의 학업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 평가 방식은 지원자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원자의 교내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대학마다 **고교프로파일**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고교프로파일은 교육여건과 교육운영의 실재를 담고 있는 자료로서 고교교육과정에 담겨있는 각종 정보를 보다 객관적이고 맥락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평가 시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장 주요한 자료이지만, **자기소개서** 내용도 지원자의 역량을 구체적이고 다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돕는 자료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이 이수한 교육의 내용과 결과를 대부분 평면적으로 사실기록 차원에서 담고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기록을 넘어선 경험의 질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아쉬울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바로 사실기록에 숨겨져 있는 나만의 성장 스토리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의 문건입니다. 평가자는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보다 입체적이고 과정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줄로 기록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지만 자기소개서를 통해 경험의 폭과 깊이를 상상하면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평가방식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는 크게 학업역량의 우수성, 전공적합성, 인성 및 발전가능성 등으로 대별됩니다. 대학마다 평가요소를 묘사하는 용어와 설명방식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이후 part 3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성적 종합평가로 진행됩니다. 정성적 종합평가라는 점에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입학업무에서의 공정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이며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이후의 질문 Q9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Part1.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학생부종합전형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다단계 평가를 기본으로 합니다.** 1명의 지원자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며, 여러 단계의 평가 과정을 거쳐 해당 지원자의 우수성을 검증합니다.

공정성은 전문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교에 대한 이해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모의평가 등 대학마다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교와의 지속적인 연계 활동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으로서 유사도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사도 검증은 전국의 대학교 지원자 자료를 대교협 유사도 검증시스템에 모두 모아 동일 학교 내에서의 유사도는 물론, 타 대학, 이전년도 자료 등과의 유사도까지 모두 걸러냅니다. 하지만 유사도 검증에서 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도 비율에 대하여 기계적 추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당사자에게 해당내용에 대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고등학교 지도교사의 소명, 또는 유선 혹은 방문면담을 통해 사실 확인을 진행합니다. 평가는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평가자 간 협의나 조정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평가자 간 의견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 재평가 또는 제3평가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학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전에 회피, 제척시키고 있습니다. 제척이란 가족 또는 친인척 관계 등 지원자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입학업무에서 배제하는 평가위원 선정기준이며 제척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입학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회피란 평가자 스스로 공정성에 의심이 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회피·제척 시스템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이후에도 대입전형 유형별로 지원자의 모든 자료를 공공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며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형을 준비한다면 평가 시스템에서 걸러지게 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Part1.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제출서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입니다. 대학교마다 사용하는 자료가 다르지만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직접적인 자료이며 학생활동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교 프로파일을 활용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핵심이 되는 전형자료입니다.

고교 3년간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해 관찰된 누가기록으로 이를 통해 학생 개인의 성장 내역을 볼 수 있는 자료이며 교과학습은 물론 학교활동의 우수성을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분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평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하는데,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는 사실기반의 정보모음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소 기술내용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경험내역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직접 작성하는 ‘나의 우수성 기술자료’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교사의 눈을 통한 사실중심의 문건이라면,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입장에서 우수성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간략하게 교육경험의 사건이 적혀 있지만 자기소개서에서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지원학과와 연계한 고민의 흔적 등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는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와 연계되어 있을 때 더 많은 정보력을 가지게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한 문장으로 표기된 학교교육활동 결과물이지만 그 활동을 통해 지원자가 의미 있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경험의 확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상호 연계되어 지원자의 성장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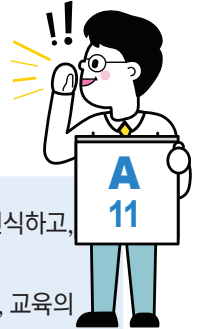
고교프로파일은 해당 고교의 교육전반을 해설하는 해설서와 같습니다.

또한 학교여건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대회나 수상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기본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입니다. 최근 고등학교마다 고교프로파일을 작성하여 대학의 평가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용의 설명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교는 물론 교사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료이므로 후반부의 평가자료 파트에서 보다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Part1.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왜 고교등급제가 문제가 되나요?



고교등급제란 ‘고등학교마다 학업역량에 있어 수준이 다를 것을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특정고등학교에 좋은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우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교등급제 논란은 대학의 서열화에 이어 고등학교를 서열화하여 교육의 질, 교육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교에 대한 계급적인 사고를 가지게 하는 부정적인 사회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교에 등급을 부여하여 고교에서 받은 내신값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고교등급제 논란은 기우일 뿐,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의 학생선발은 우수인재를 선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성장시킨 학생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취지입니다.**

고등학교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특성이 차등적으로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는 고교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학교교육에서 어떠한 교육의 과정과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서로 다른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의 성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맥락적이고 개별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고교의 특성을 무시하여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일괄 평가하는 것의 문제는 더 큰 사회적 비판거리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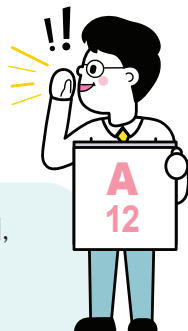


입학사정관들이 고교프로파일을 요청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차등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되는 해당 교육과정을 거쳐 온 학생 개개인이 어떤 역량을 갖게 되었는지를 주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배경지식을 기반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평가의 범위는 해당 고등학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교 간의 비교를 통한 서열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Part1.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학생부종합전형 시행과 함께 3불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3불정책이란,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금지되어온 3가지 대입관련 정책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대에 도입되어 우리나라 대학입시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이 되어온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의 3가지 금지사항. 본고사는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각 대학이 실시하는 시험이고,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를 일정한 등급으로 나누어 대학입시에 그 등급을 반영하는 제도이며, 기여입학제는 대학에 물질적, 비물질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대학 입학의 특례를 주는 제도(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이 내용은 각 대학이 전형을 설계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원칙에도 명시하고 있어 모든 대학이 따르고 있는 정책입니다.

3가지 주제를 각각 살펴보면, 첫째, 본고사와 관련한 논쟁은 대학의 설립목적과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학 자율의 본고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대학별 본고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교육 의존도와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씨를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현재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별 고사의 축소 유지가 강조되고 있으며 고교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은 본고사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대학에서 대학별 논술고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출제 문항의 범위를 고교교육과정 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대학별 본고사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대학의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여입학제는 대학 운영의 절대적인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에서 기부금 입학을 허용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세습을 인정하는 측면,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분, 자본논리에 의해 교육 영역이 계층화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민정서에 반(反)하는 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교등급제 논란은 학생개인의 능력이 아닌 학교 선배들의 실적이나 성적에 의해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실력이 아닌 외적 요소로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의 본질이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신중론과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시행되는 것과의 3가지 교육정책은 연결고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불정책은 우리나라 교육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정책 기조로 설정한 것이며 학생부종합전형은 우수인재를 평가하는 새로운 차원의 평가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3불정책이 약화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며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접목함에 있어서 기존의 준칙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세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Part1.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학생부위주전형 안에는 어떤 전형들이 있고,
그 전형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학생부위주전형에는 크게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 중에서 교과관련 성취내용을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주로 학교생활기록부 내신등급을 가장 높은 비율로 반영하고 기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와 면접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국가교육과정 편제표에 따라 이수한 교과목의 학업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며 수량화된 내신등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교과 성적을 기본으로 하지만 많은 대학에서 능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므로 다른 전형에 비해 경쟁률은 낮은 반면 교과 성적은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내신을 포함한 학교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대체로 서류평가 100%로 진행하며 교과활동을 포함한 학교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교과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인데 반해 학교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아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에 기술된 내용이 미미한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업에 충실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다양한 활동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학과(또는 계열)와 관련된 기본적인 학업능력이 있고, 교내에서 수행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성취를 보여 줄 수 있는 학생이라면 학생부종합전형에 적극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고교 생활이 어디에 초점이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부위주 전형 내에 몇 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전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고교에서 추천 받은 학생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기도 하고,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하여 면접을 통해 역량평가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원 자격을 세분화하고 자격 유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부위주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공통점을 가지며 세부적인 유형으로서 지원 자격을 구분하거나, 세부 전형 요소 간 조합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전국의 대학 기준, 학생부교과전형이 전체 선발 비율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서울·수도권 주요대학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비율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rt1. 수능최저학력기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고 싶어요.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사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수능최저학력기준이란 수능시험의 성적 중, 등급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
능시험성적은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등급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수능최저학력기준
은 9개의 등급을 활용합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수능시험의 총괄적 기능에 대한 교
육적인 활용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고교교육과정을 최종 이수한 학
생들이 수능시험을 통해 본인의 총괄적인 평가를 완성하는 것인데, 수시모집에 지원하
는 학생들에게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최소한의 학력기준을 통과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능최저기준은 다른 전형 요소가 무의미할 수준의 높은 기준
이 아니어야 하며, 대체로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능성적을 고려한 최소한의
등급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고 학생선발 정책과 관련된 것이므로, 어느 것이 옳다 아니다 판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지난 2018년 8월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주제
에서도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여부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공표하였습
니다. 다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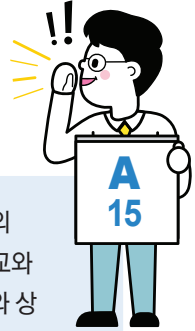
관련하여 수험생이 가지게 되는
부담감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해
석을 통해 선발방법의 취지를 저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
겠습니다.





Part1. 고교-대학 연계

고교-대학 연계활동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까요?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게 된 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 확대 시기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대입전형에서는 고교와 대학이 연계하는 주제가 거의 없었으며, 대학의 학생선발은 고교에 대한 이해와 상관없이 대학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설계, 운영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입시가 고교교육과정의 완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만큼, 고교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토대를 둔 전형설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되면서 모든 대학은 고교교육을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교생들이 교과공부는 물론, 다양한 학교활동을 통해 핵심역량을 키워오고 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이 선행된 후 그 진로에 바탕을 둔 진학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진로에 대한 탐색이 부족한 채로 소위 진학실적에만 연연한 진학지도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교에서의 교육이 대학진학을 위한 통로로서만 기능하지 않도록 진로탐색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합니다.

고교-대학 연계는 진로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노력이며 양자 모두 의미 있는 교육활동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교생이 직접 대학을 탐방하여 본인의 희망 진로에 맞는 대학 강의를 맛보기도 하고, 직접 학문영역의 탐구수준을 체험하기도 하며, 대학의 교육인력을 고교에 파견·지원하여 교육수요에 맞게 특강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고교 교사들의 진로 진학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대학이 직접 제공하여 학생지도에 보탬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교와 대학은 위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교에서 수행해야 하는 교육경험을 완수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학문탐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고교-대학 간 간극을 좁혀가는 노력, 이것이 바로 고교-대학 연계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Part1. 고교-대학 연계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하여 고교교육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는지 평가자의 관점에서 알려주세요.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생활의 우수성과 충실성이 대입선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과거에는 고교생활을 소홀히 해도 내신 등급이나 수능점수가 높으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교의 우수성을 수능점수나 대학 입학 실적으로 판정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고등학교 3년을 대입을 위한 준비과정만이 아니라 경험과 성장의 과정으로 변화시키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시행한다 해도 평가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핵심은 학생이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생활을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성실히 수행해 왔는가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진로 계획이나 그에 따른 선택 과목, 또는 관련 활동에 참여한 과정 및 성과 등을 보면서 과정중심, 맥락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방식의 평가는 정량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수해야 하는 심화과목 수나 대회 수상 개수, 또는 희망 학과 지원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 등의 기준을 미리 설정하지 않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 개개인의 학교생활과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도전한 활동 또는 진로와 관련한 노력 등을 연계하여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교 여건에 따라 개설 교과목, 학교 활동 지원의 정도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맥락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학생부종합평가의 주요사항입니다. 따라서 고교에서는 대입의 유·불리에 좌우되지 말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교육을 해 나가면 됩니다.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토론활동을 열망한다면 과감히 토론회 수업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수 위주로 대학을 갔던 시절에는 수업 시간을 문제풀이에 할애하는 것이 현실적이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수업 시간 토론에서 학생이 맡은 역할이나 그에 따른 경험 등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보고자 합니다. **대학은 수업이나 학교활동에서 나타난 수험생의 역량을 포착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수업 내에서의 학생의 변화는 우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키워낼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분야에 맘껏 참여하여 본인의 호기심을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익혔던 지식을 몸과 마음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나만의 지식세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흔히 '역량'이라 하지요. 역량이란 문제 풀이에 필요한 얇은 지식이 아니라 새로 접하는 문제 상황에서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시험문제에 틀리지 않도록 연습을 반복하여 좋은 점수를 받는 일, 이러한 경험이 대학에서의 학문탐구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학문 탐구에서 맞닥뜨리게 될 수많은 시행착오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생부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



PART 2

서류평가 : 평가자료

| 세부유형 |

학교생활기록부	Q17 ~ Q34
자기소개서	Q35 ~ Q41



Part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고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 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의사항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각 항목은 학생의 학교교육활동 결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입력한다는 것은 언제 어떤 동기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수행해서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 평가한 누가 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것은 3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통해 발현되고 성장한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더 타당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시험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은 학교생활기록부란 3년간의 적극적이고 충실한 학교생활을 담아낸 서류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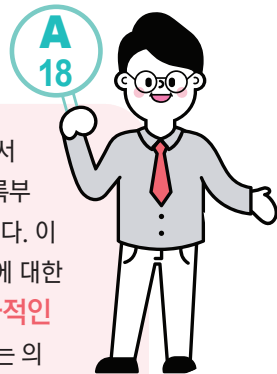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들이 기록한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종합적 기록물로서, 학생이 얼마나 충실하게 학교생활을 하였는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교과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업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자신의 지적 호기심과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학습과 활동을 하였는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학생 활동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이를 통해 성장해가는 학생의 모습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는 ‘사실의 기록 + 관찰과 평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의 기록은 학교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과 활동, 그리고 학생 개인이 학교 프로그램 내에서 수행한 활동과 학교 프로그램 밖에서 행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는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난 모든 항목들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Part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생활기록부는 다수의 교사가 참여하여 작성한 객관적인 서류로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평가 자료입니다. 좋은 학교생활기록부란 3년간의 적극적이고 충실한 학교생활의 모습을 담아낸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 어떤 항목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들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는 각각의 **항목별로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덜 중요하다거나 또는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 학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떤 경우는 출결사항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정보가 될 수 있고,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특정 학교생활기록부 요소가 학생 이해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항목이 다 중요하면서 의미 있는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할 때는 재학 중 학생의 학교 교육활동 결과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하되 학생 개인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요소별로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을 상호 연관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업역량을 평가할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수상경력, 창의적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전반적인 고등학교 학업활동을 고려하는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인성적 요소를 평가할 때는 수상경력, 창의적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각 항목들은 평가를 할 때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므로 각각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 중요하게 바라보는 요소를 꼽는다면 **평가 항목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업역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특히 학업성취도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담고 있는 정보가 많다 보니 그 요소가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때도 수상경력과 독서활동상황, 동아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드러나 있는 지적 역량과 관련된 요소 등도 상호 관련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공적합성을 평가할 때는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 독서활동 등의 요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처럼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는 평가요소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요소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한 단선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는 종합적 평가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모두가 중요한 독자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Part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 간 교사 간 기록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나요?



서류평가를 할 때 입학사정관들은 제공되는 서류만 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좋은 기록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학교 간 교사 간 기록의 차이에 의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자들은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간 교사 간 기록의 편차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서류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양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주로 질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평가적 진술을 덧붙여 기록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학교 단체 활동 참여 내용만 기록한 경우 등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는 추정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근거에 입각한 **사실 관계를 위주로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는 사실과 의견으로 그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적 진술보다 의견이 과도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항목들을 상호 연관 관계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성취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사실 관계 위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진술되어 있을 때 그 내용을 학생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방식과 종합적 관점에서 스토리를 엮어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학교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학교 프로그램 중심으로 되어 있어 여러 학생들의 기록이 비슷하면 평가자는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개별화된 요소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런 차별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등의 다른 제출 서류를 통해 핵심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성장의 과정을 엿볼 수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아예 기록이 없는 경우에 기록이 이런 학생을 좋게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특정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들어 있지 않았을 때 평가자는 자기소개서 같은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므로 그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평가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공통고교정보 등 **제출된 서류를 최대한 활용한 종합 평가를 통해 학교 간 교사 간 차이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Part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는 분량이 많을수록 좋은가요?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대학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이 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는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올해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학교생활기록부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관심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자주 나오는 궁금증 중 하나입니다. 또한 분량과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선생님의 글쓰기 역량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미사여구를 남발하거나 상투적인 표현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양을 늘린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을 보면 영역별로 작성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단순화될수록 학교생활기록부의 분량보다 **학생들이 참여한 교육활동과 학생 개개인의 역량**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 작성 사례들을 살펴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분량은 많지만 실제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며 읽었던 모든 책을 작성하여 분량을 늘린 경우보다는 비록 분량은 그보다 적더라도 독서를 통해 학생이 새로운 지식을 얻고 다양한 분야의 교양을 쌓아 능력이 향상된 것을 작성해주는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에 따라 전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분량에 대한 부담을 버려도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3년 간 성장을 관찰한 모습**을 기록하고 학생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학생의 역량이 잘 나타나면 됩니다.



Part2.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학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같은 학교에서 최소 한 명 많게는 수십 명의 학생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고교에서 지원하면 학교 교육계획과 교육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는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교과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교과 수업 소개 내용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단체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분명 동일 교과나 체험활동에 대한 소개는 유사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속에서 이루어진 개인의 활동 모습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수업을 대하는 자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개인의 모습, 관심이나 흥미 있는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 환경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모습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개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평가 시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평가를 할 때 같은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에서 동아리 소개를 길게 하고 그 속에서의 학생의 역할은 한 줄 정도로만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들은 유사도만 높고 그 속에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의 근거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개인적 역량을 찾기 힘들지라도 자기소개서 등 다른 제출 자료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개인적 역량이 잘 나타난 학교생활기록부가 작성되려면 수업과 체험활동을 할 때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적극적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은 학생의 그 자세를 관찰하여 동일한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임한 학생의 태도 및 성장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도 수동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아내어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십 명의 지원자 속에서도 빛이 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될 것입니다.



Part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점점 간소화되면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2019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평가 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와 항목을 정비하고,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활동 중심으로 기록하며, 교사 간 기재 편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을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입에 제공되는 수상경력·의견의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하고, 진로희망사항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기재되는 자율동아리를 학년 당 1개로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소논문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모든 항목에 미기재하기로 했으며,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불이익을 감안해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던 방과후학교 활동도 기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 담당교사가 정규수업 중 관찰한 학생 활동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도 클럽이름, 활동시간, 출전경력 등 과도하게 기재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간소화하고,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도 기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삭제되고 봉사활동 실적은 현행대로 입력하기로 했습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재 분량도 500자로 축소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간소화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여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격차 완화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을 단순화하게 되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평가의 자료가 현행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평가 자료를 통해 평가요소와 관련된 역량을 선별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학업성취도와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토대로 한 학업역량의 비중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시된 수상경력을 통해 어떤 특징적인 역량이 있는지, 동아리활동을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한 심화된 활동 역량,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특징들을 면밀하게 살펴 볼 것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하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평가 방향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공되는 자료를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하여 평가하게 되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평가 요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Part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자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기록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의 운영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이라고 믿지만, 실제 학교생활기록부를 읽다 보면 활동 내용을 미화하거나 부풀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가자는 기록되어 있는 **행간의 의미나 다른 자료들과의 상호 연관 관계 속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업과 관련된 역량을 평가할 때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이 의심스러우면 교과 성적, 수상경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다른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요소들 간의 논리적 인과 관계를 확인한 다음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록하므로, 특정 기록 자체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제출 서류나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항목에 드러난 여러 기록들을 참조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제시된 기록이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로 짐작되는 경우입니다. 평가를 하면서 만약 사실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실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서류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대부분의 대학들은 실사에 대한 내부 심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 나가 직접 실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전화로 진위 여부에 대한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실사가 필요한 경우가 적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서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위 여부가 아주 명백하지는 않지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또 의심스러운 내용이 지원자가 서류평가에 통과하느냐 없느냐를 좌우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그 부분은 면접에서 확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서류평가를 할 때 이러한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면접에서 질문을 하고 질문자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대학 나름의 명확한 절차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결국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진위 여부는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Part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의 3학년 1학기에 작성된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학생부종합전형은 3년 동안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졸업 시까지 학교 교육계획이나 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을 통해 학생이 성장해 가는 변화의 과정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은 3년간 재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특히 3학년 1학기 때 활동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어 있을 때, 그 활동을 진정성 있게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의 모습은 각종 교육활동 중 수능 준비가 하루 일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교과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활동사항을 부풀려 기록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학년에 와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각종 교육활동에 더욱 성실히 참여해서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활동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됩니다.

결국 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3개년 간의 기록을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3학년 때의 기록이 평가의 비중으로 보았을 때 낮다 높다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학년 입학부터 3학년까지의 학교생활 전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 성장의 과정을 평가하기 때문에 3학년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이라 하더라도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3학년 과정이 학업에 몰입하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학업성취도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을 보다 비중 있게 살펴볼 수는 있지만 창의적체험활동이나 독서활동 등도 균형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art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상 경력은 단순히 수상의 개수 혹은 등위를 정량화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의 의미와 가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상을 단순히 개수와 등위로 정량화하여 수상 경력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상의 양이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성평가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A고교에서는 수학교과 관련 수상은 수학기시대회 하나로 소수의 인원에게 수상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B고교에서는 수학교과관련 수상의 개수가 10개가 넘고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수상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럴 경우 학교별 환경 차이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이러한 환경 차이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고교에서 작성하여 보내주는 고교프로파일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고교의 수상의 개수, 난이도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 경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을 확인하여 실제 교과활동에서 보여준 학생의 역량과 함께 수상 경력을 정성평가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단순히 수상의 양에 따른 우물리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상 경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상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는 **학생이 수상한 내역을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도, 열정, 성취 정도와 깊이 등을 알 수 있고, 협력의 태도,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 경력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 중 전공적합성과 관련하여 지원 전공과 관련된 학생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글쓰기 관련 대회, 토론 분야의 대회는 인문·사회계열의 전공적합성을, 수학·과학 경시대회는 자연계열의 전공적합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체육 관련 경시대회를 통해 예체능 계열의 전공적합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성과 관련한 역량도 수상 경력을 통해 확인할 가능합니다. 공동 작업을 통한 협력의 태도,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의 모습 등을 수상 경력을 통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상 경력은 다양한 교육적 가치와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의 근거를 제공하는 영역입니다.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각도에서 수상의 양과 질을 확인하고 근거가 되는 다른 평가 영역들과 연계하여 정성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발표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따라 2019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대입에 제공되는 수상 경력 개수가 학기당 1개로 제한되므로 수상 개수에 따른 학교별 편차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art2.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은 석차등급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의 산출 방식이 아닌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이수교과목 등을 고려하여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 방식을 취합니다.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는 학생의 학업역량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산출된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의 학업역량을 모두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과 성적 평균이 2.5등급인 두 명의 지원자가 있습니다. 대학의 평가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석차등급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을 따르면 두 명의 지원자 모두 같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한명은 '우수', 다른 한명은 '보통'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지원자의 눈에 보이는 평균 등급은 2.5등급으로 동일하지만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수강자수, 이수교과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취 기준의 수준이 높아 많은 학생들이 꺼려해 수강자수가 적은 과목을 수강한 경우라면 눈에 보이는 석차등급은 낮을 수 있으나 교과를 선택하고 수강하는 과정에서 보인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성 등은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석차등급을 받게 된 환경과 그 교과를 수강하면서 보여준 지원자의 학업태도 및 의지가 종합적으로 학업역량 평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과 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이 학생부종합전型的 정성적 평가 방법입니다.

교과 성적은 수상경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등과 함께 학업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특정 영역의 우수성만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판정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여러 항목과 함께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자가 대학에서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서 학업적인 성장과 성취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Part2.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기재된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육현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생 개인의 성장과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해 기존의 강의식 수업은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변화했고 그 속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 수준, 참여도 등이 중요하게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보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 등을 문장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 학생이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보여준 개별적인 특성 및 성취도의 기록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와 기록의 변화는 학교생활기록부 어느 항목 보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항목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어떤 평가요소와 연결할 수 있을까요? 평가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등의 평가요소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기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태도, 능력 등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한 교육환경 속에서 스스로 배움을 확장시켜 나간 모습, 토론이나 실험, 과제수행, 집단학습 등을 통해서도 창의성이나 자기주도성 등을 발전시킨 사례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업과 과제 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주도적인 노력, 열의와 관심, 성취 수준, 다양한 탐구 방법의 모색과 같이 의미 있는 지적 성취의 모습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평가할 때, 평가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여러 항목을 연계하여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수학 시간에 보인 학생의 구체적인 태도,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의미와 가치를 평가합니다. 독서의 의미를 평가할 때에도 교과활동에서 활용된 부분이 있었는지, 독서의 내용이 수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능력, 태도, 의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더욱이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 참여형 수업이 더욱 활성화 되면 교과활동이 다양화 될 것이고 학생들의 개별적 교과활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개별적 특성을 잘 나타내어 주는 매우 중요한 평가영역이 될 것입니다.



Part2.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희망사항이 일관되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희망사항은 학생의 진로 설계 및 변경 등을 고려하여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을 기재하고 희망 사유에는 충분한 상담과 관찰을 통해 진로 선택의 동기, 이유, 계기 등의 진로 희망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로 희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면서 일관되게 나타나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원 모집단위에 진로희망을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진로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성장의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희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진로희망이 바뀌었을 경우 **변화하게 된 과정 혹은 타당한 사유**를 진로희망의 희망사유, 창의적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특기사항,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 준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자는 진로희망의 일관성 못지않게 변화 과정의 타당성과 학생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진로희망사항을 분석해 보면 일관성 있는 진로를 갖고 있는 학생, 탐색과정에서 유사한 분야로 변화하는 학생, 유사성이 없는 분야로 변화하는 학생 등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로희망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진로희망과 관련 없는 학과를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로희망사항을 통해서는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항목과 연결하여 진로 목표를 위한 노력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로희망사항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진로희망이 변경된 계기와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진로탐색활동을 통해 주도성을 갖고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탐색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진로희망사항이 일관성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는 탐색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지니고 있는 전공 역량이 확장되거나 점점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희망 진로만 일관될 뿐 지원 전공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느낌을 보인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Part2.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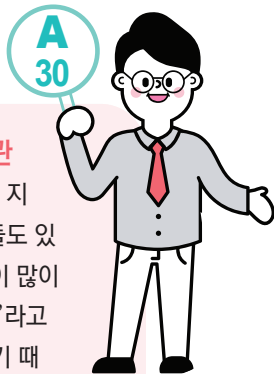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입니다. 4개 영역별 활동내용과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게 됩니다. 4개 영역 중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은 상대적으로 본인의 관심사와 노력이 반영되어 방향성을 잡기 쉬운 반면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활동을 따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서는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활동은 학급이나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활동, 학교행사, 상담활동 등 학급 전체가 함께 하는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고교에서 지원한 학생들, 특히 같은 반에서 지원한 학생들은 대부분 자율활동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비슷합니다. 학급 자치회, 협의활동 및 친목활동에 대한 소개, 동일한 활동 내용 등 일반적인 작성을 통해서는 개인의 역량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은 단체 활동에 임할 때 ‘수동적으로 따라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동일한 학교행사에 참여하더라도 배우고 느낀 점과 활동에 따른 행동변화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특징과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술보다는 구체적 활동 사실과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변화와 성장을 기록하면 자체활동이 개별화되어 의미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활동이라는 환경에서 방향을 잘 설정한다면 자율활동에서도 본인만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1~3학년에 걸쳐 자율활동 영역에 작성된다면 의미 있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활동입니다. 사실 진로활동 영역이 학생의 관심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많은 경우 진로활동 특기사항에는 성격검사, 진로검사 등의 결과 학년 혹은 계열, 학급에서의 진로 강의, 진로 및 전공 체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의 진로에 대한 관심, 열정, 노력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진로활동을 원한다면 학생은 **관심 분야, 진로 목표를 기반으로 독서나 체험 등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즉, 개인이 진로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희망 전공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록하거나 단체 진로 활동을 통해 본인이 알고, 느끼고, 변화되고, 다른 활동으로 연결된 것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교에서의 활동은 대부분 단체 활동입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한다면 공동체 속에서 나만의 특별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Part2. 학교생활기록부

**동아리활동을 평가할 때 정규동아리와 자율동아리 중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활동한 동아리 개수가 많을수록 좋은가요?**



학생들은 **동아리활동을 통해 본인의 관심 분야 및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공 관련한 활동과 경험**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 모집단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동아리활동에 매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규동아리 이외에 자율동아리에 대한 관심과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율동아리를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한다면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의 개수가 많아야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규동아리활동을 통해 충분히 본인의 관심분야에 대한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자율동아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학교의 환경에 따라 정규동아리에 관심 분야와 관련된 동아리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수의 인원만을 동아리 부원으로 선발하여 활동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율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율동아리는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규동아리에 비해 활동 내용 및 기간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자율동아리 개설 목적부터 성취과정, 개인의 성장까지가 잘 기록되어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 시 정규동아리와 자율동아리에 대한 내용은 고교교과파일의 동아리활동사항을 통해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즉, 동아리활동을 평가할 때에는 고교교과파일을 통해 각 동아리별 활동 내역을 확인하고 개인별 활동내역을 평가하기 때문에 개인별 활동의 내용, 그 속에서의 나의 역할, 기여도, 성취 과정이 중요합니다. 정규 동아리활동만 하더라도 학생의 관심사, 기여도, 역할, 협력의 태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규동아리 1개, 다수의 자율동아리 등 여러 활동을 하며 관심분야를 위한 노력을 했더라도 작성내용이 일반적인 동아리 소개를 하거나 구체적인 지원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동아리활동은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아리활동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발표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사항에 따라 자율동아리 기재 동아리 개수를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동아리명, 동아리 소개)만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Part2.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은 학교 봉사 외에 개인 봉사도 중요한가요?

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이타심, 나눔과 배려 정신 등을 키워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많은 대학이 봉사활동을 통해 지원자의 인성과 공동체 의식 수준 등을 파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험은 필요합니다.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지원자들의 봉사활동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충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봉사활동 시간을 가지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개인 봉사는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이 많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적으로 시간을 늘리기 위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지원자 본인에게 의미 있는 활동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봉사활동의 시간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내용입니다.

봉사활동의 실적과 시간, 그리고 경험은 봉사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느꼈는지,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는가를 가늠하기 위한 기준일 뿐입니다. 결국 봉사활동 시간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봉사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해 입력하되, 왜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됐고 그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즉, 학생은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담임교사는 학생의 느낀 점과 성장 기록 등을 특기사항에 기록을 잘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요소를 통해서 봉사를 대하는 학생의 태도 등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 봉사활동이 중요한지 개인 봉사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물론 학교 밖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성장한 과정을 엿볼 수 있을 때 개인 봉사활동도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봉



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본분을 넘어서는 많은 시간의 교외봉사활동은 오히려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내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활동일지라도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충실히 임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특별히 시간을 들여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평소 학교생활 속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 개인 혹은 친구들과 활동했다면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내용이 꼭 지원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범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꼭 교육봉사를 해야 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전공과의 연계성은 넓은 범위에서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학과-복지관 봉사, 사학과-박물관 봉사’처럼 봉사활동을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봉사활동을 통해 얻고자 한 것, 실제로 그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드러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봉사활동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rt2.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에서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전공 관련 독서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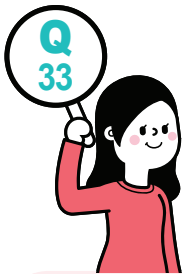


독서활동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채워가는 공간으로 지원자의 관심 분야,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성, 논리적 사고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독서의 양이 많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독서활동은 자아를 발전시키고 지식의 세계를 확장시켜 가는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서활동은 이러한 탐색의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독서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근거를 타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사, 지원 분야, 학습 경험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독서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서는 교과학습에서 충족되지 못한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고 교과 학습 내에서 학생의 주도적인 학습 수단으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의 성장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독서활동을 통해서 평가자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는 전공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학생이 지니고 있는 포괄적인 학업 역량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학생이 한 독서활동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 등과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업역량이 뛰어난 학생이거나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학생이라면 학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또는 심화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꾸준히 독서를 하였을 것이고 평가자는 평가 요소와 관련된 심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서의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폭넓게 읽는 것이 유리한지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책을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둘 다 나름의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평가자들은 학생이 어떤 독서 습관을 가졌고, 어떤 동기와 방향성을 가지고 책을 읽었는지, 교과와 관련하여 학업역량을 기르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독서가 본인 성장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지적 역량이나 지적 호기심을 보여주는 독서활동**도 의미 있고, **관심 영역에 대한 심화된 독서**를 통해 역량을 기르는 활동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독서가 저자와 도서명만 기록되기 때문에 독서량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있는데 독서활동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교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책을 읽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실제 교과 영역과 관련하여 좀 더 찾아보고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단계별로 심화된 내용의 독서를 했을 때 좀 더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서활동상황은 자기 주도적 도서선별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세계사 시간에 터키에 대해 배운 후 터키 역사를 알아보고자 터키 역사책을 읽었다면 자기주도적 도서선별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Part2.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가 학교생활의 모습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 진로적성검사, 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 체육·예술 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각 학년별 학교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기술된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총평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은 학교생활기록부 앞 부분에서 언급한 항목과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수시로 관찰해 누가 기록된 1년간의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학생의 변화와 성장 내용**을 기록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항목에서 누락된 내용을 보충하여 기재하고 중요한 활동에는 의미를 부여해 강조해주는 최종적인 정리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인성 등 정성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학업역량의 발전과정을 볼 수 있는 정량적인 내용도 기록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자가 종합의견만 읽고도 충분히 지원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추천서라고 생각하고 총체적인 기록을 해야 합니다.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만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는 대학도 있으므로 더욱더 신경 써서 기록해야 합니다.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학교생활기록부 전체 항목이 제시하는 학생 개인에 대한 총체적 정보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평가할 때 평가자는 학생의 학업 특성도 살펴보지만 학교생활 전반에 나타난 대인관계의 특성이나 배려심, 공동체 의식 등 개인적 성향에 대한 **인성적 측면**에 먼저 주목합니다. 대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학생이 지니고 있는 장점 위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책임감, 성실성, 리더십, 협동심, 나눔과 배려, 사회성 등에 대한 평가적 진술을 통해 다른 항목과 상호 관련 속에서 개인적 소양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학업에 대한 목표의식과 노력,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수업 참여도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부터 **학업 역량** 등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태도와 의지, 탐구활동 등의 역량을 학교생활기록부의 앞부분에서 기술된 다른 요소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살펴봅니다. 또한 전공에 관심과 이해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과 연관된 내용을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통해 **전공적합성**과 관련된 요소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Part2. 학교생활기록부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성취도 수준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성취평가제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별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로써 상대적인 서열에 따라 ‘누가 더 잘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즉, 석차 등급제가 비교집단 내의 상대적인 서열에 기반을 둔 상대평가 방식인데 반해, 성취평가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성취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강제로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와는 달리 성취 수준별로 강제로 배분된 비중이 없는 평가방식입니다.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교육과정 선택권**을 강화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성취기준 도달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내재적 학습 동기 향상 및 협력 중심의 교실 수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 능력, 학교내 활동,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호기심,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 교육환경 등을 고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성취평가제와 어느 정도 취지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행 대입 제도상의 서열화 구조를 그대로 두고 학생평가 방식을 성취평가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학생 평가방식의 혁신이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석차 9등급제와 아울러 성취도가 제공되는 현재는 대입전형 요소로서 성취평가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9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진로선택과목에서 성취도를 3단계로 평가하게 되고 2025년에는 전 과목 성취평가제가 도입되어 대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교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도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 구성, 문제 해결 과정, 사고력, 진취적 태도, 도전 정신 등 학업 과정이 중요하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와 학생의 개별성이 더욱 발현되는 진로선택과목에서 나타난 성취도 수준을 정량적인 수치만으로 단순화하여 평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학생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성취평가제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난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취도는 정량적인 수치로 단순화하여 평가하기보다는 **과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 성취도가 지니고 있는 의미 등을 정성적으로 해석하여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Part2.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이 학교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교사입장에서의 성장과 관찰의 결과를 나타내는 자료라면 자기소개서는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드러내는 자료입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가 3년간의 학교생활을 통해 지원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실과 결과 중심의 서류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는 동기과 과정 중심으로 기록한 지원자의 고교생활을 들려주는 해설서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읽어나가는데 중요한 해설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기록한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글이므로 교사들이 학생을 관찰한 모습과 내용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나 신념, 학업이나 활동 과정에서 얻은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성장케 한 교육적 경험과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보여주는 일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도구가 바로 자기소개서**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는 서류로 자기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이나 공부를 하고 싶어 하며, 또 하려고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평가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소개서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글쓰기의 도구는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고교생활에서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나 활동들을 객관화시켜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작성하는 일종의 객관적 글쓰기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소개서는 ‘무엇’에 대한 주관적인 결과를 서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에 대한 객관적인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근거하여 서술되어야 하고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기술적으로 잘 썼느냐 못 썼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활동에 대한 인과관계, 지원자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 등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에서 열심히 노력해 온 모습을 자신의 글로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중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나만의 모습을 나 자신의 목소리로 들려주면 됩니다. 내가 노력했던 많은 일과 과정이 있는데, 그 사실만을 나열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느낀 점과 생각, 의지를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Part2.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가 부족해도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합격할 수 있나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정성적, 종합적 평가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평가자료 간 비율을 두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70%, 자기소개서 30%처럼 서류별 배점 또는 반영 비율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소개서의 실질 반영률을 수치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읽기위한 해설서 역할을 하는 자기소개서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 상황이 작성되어 있고,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활동과 경험에 대한 표현이 주관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자료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아마도 상호 보완으로서의 자기소개서의 역할보다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여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조금 더 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 자기소개서는 주관적으로 작성된 기록물이기 때문에 잘 작성된 자기소개서만으로 합격의 열쇠를 쥐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만을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대학은 있어도 자기소개서만을 단독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은 없는 것도 지원자의 주관적 기록물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클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만으로 합격의 열쇠를 쥐는 것은 어렵지만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을 충족해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경험과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나요?’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합니다. 바로 그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나 마음을 자기소개서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떤 활동을 하여 A라는 결과물을 산출했습니다.’ 라는 간결한 기술이 있다면 사실 그 A라는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도전, 장애물, 극복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면 평가자는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산출물이 다소 부족하거나 도전한 결과가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노력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발전가능성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이 수치화된 지표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지원자를 이해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art2.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의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관심 분야의 지원 동기를 나타내기 위해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지원자의 의도처럼 지원 동기 및 환경을 이해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학에 입학 후의 수학적능력을 검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지원자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의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 대해 많은 부분을 작성하게 되면 오히려 2019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추가된 ‘출신교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라는 조항에도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해도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을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기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평가자의 입장에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았다면 교외 활동의 종류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내 활동보다 지금 작성한 교외 활동이 중요한 이유, 그 활동으로 인한 본인의 성장한 모습, 구체적인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이라면 자기소개서에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그 활동이 다른 어떤 활동보다 본인에게 중요한 이유와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Part2.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의 작성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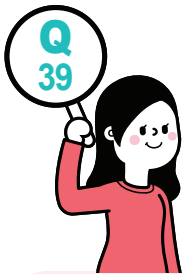


평가자는 지원자의 모든 제출서류가 진실일 것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평가를 시작합니다.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자료의 특성 상 지원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자료이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사실과 특성, 반복적 서술 내용 등에 기반하여 작성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성도 확보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진위여부는 **1차적으로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대교협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합니다.** 검증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이 정한 내규에 의거하여 소명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진실이라고 믿으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간극이 크거나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하였으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교외 활동의 경우에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1차적으로는, **유선상으로 해당 고교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접과정에서 작성된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또한 매우 드물긴 하나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짐작 되거나 전화 인터뷰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실사를 나가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합격후에도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입학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진실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평가자가 공정하게 평가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평가자료의 신뢰도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교사의 신뢰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학생의 신뢰도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신뢰도 높은 전형으로 자리 잡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art2.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0'점 처리 항목과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잘 확인해서 실수로 인하여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작성 금지 항목에 대한 실수 이외에 실제 지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자신을 미화하고 허위, 과장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작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을 혼자만의 실적으로 작성한 다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독서활동 내역이 거의 없는데 독서에 대해 과하게 작성하면 평가자료 간 불일치로 인하여 작성 내용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구체적인 상황, 행동, 결과가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간혹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고, 그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과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의 중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문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을 읽어보면 각 문항에서 보고자하는 역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문항에서는 지원자의 학업역량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질문 문항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본인 작성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문항에서 요구하는 글자수가 있는데 터무니 없이 적은 분량을 작성하거나 오타, 맞춤법 오류, 지원 대학, 지원학과와 명칭 오류 등이 나타나면 지원자의 진정성과 성실성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보안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표절하여 유사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나 도서관 등의 공용 컴퓨터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야 하며 학교 선생님 외 다른 사람에게 자기소개서 검토를 요청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며, 학교생활기록부를 해설해주는 가이드 같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금지 항목 뿐만 아니라 입력기간 준수, 특수문자 입력 제한 등 기본적인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기본을 지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Part2.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문항별 작성 팁을 알려주세요.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함께 주요한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항 구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문항 3문항과 대학별 자율문항 1문항으로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통문항은 2015학년도부터 사용되었으며 전형 자료의 간소화 정책에 따라 자기소개서 문항을 대교협 공통문항만을 사용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번 문항, 공통문항]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한 자신의 경험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한 적이 있는지, 자발적인 성취동기를 가지고 깊게 학습한 경험이 있는지,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더 넓고 깊게 확장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는지,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고 그러한 경험들이 자신에게 준 영향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2번 문항, 공통문항]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한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항에서 주의할 점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활동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심 활동을 심화시키고 다른 활동으로 발전하고 융합한 사례나 지원학과와 관련되어 활동한 것 중 자신의 관심과 열정을 부각할 수 있는 사례 등을 대상으로 그 활동의 시작 동기, 활동 과정, 그 속에서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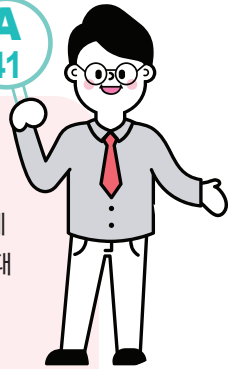
[3번 문항, 공통문항]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여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공통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있는지, 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지, 봉사를 통해 나눔을 생활화 하는 경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례만 자세히 기술하고 느낀 점은 형식적으로 간단히 적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별로 자유롭게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문항 한 문항은 많은 대학에서 지원 동기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4번 문항에서는 지원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의 수준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자가 지원자를 이해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41

Part2.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에 다양한 활동 내용을 작성하는 것과
지원한 학과와 관련한 활동을 위주로 작성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나요?

A
41

자기소개서에 무엇을 쓸 것인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문항별로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내용을 일관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즉 다양성을 추구할 것이냐 일관성을 추구할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라는 전형 자료의 특성 상 어떤 소재를 채택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소재를 찾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러한 **경험 속에서 지원자가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이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생각했고, 상황을 인식하고, 노력하였는지에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요소를 이해하고 각 평가요소에서 필요한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과에 지원한 두 명의 학생이 자기소개서 3번을 작성하면서 봉사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작성했는데, 한 학생은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을 통해 본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깨닫게 되었고, 다른 한 학생은 수학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학교에 공헌할 수 있는 바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소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배우고 느낀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두 명의 지원자 모두 자기소개서 3번을 통해 볼 수 있는 역량인 인성, 배려, 협력, 나눔의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소재에 상관없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과 일관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 및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찾아 자기소개서에 작성한다면 다른 평가자료와 연계하여 지원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



PART 3

서류평가 : 평가요소

| 세부유형 |

공통	Q42 ~ Q47
학업역량	Q48 ~ Q53
전공적합성	Q54 ~ Q58
인성	Q59 ~ Q62
발전가능성	Q63 ~ Q66

PART 3

서류평가 : 평가요소



Part3. 공통

학생부종합전형은 어떤 기준으로 서류평가를 진행하는지 궁금해요.

※ 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이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수행한 공동연구 「대입전형 표준화방안 연구」(2018)를 통하여 제시한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대학별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의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에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을 자세하게 안내 하고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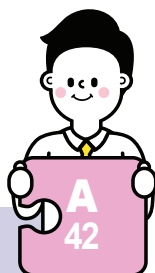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4가지 평가요소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견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평가요소는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요소와 세부 평가항목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업역량’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의미합니다.

학업성취도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 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목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 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탐구활동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전공적합성’은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를 의미합니다.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고교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인성’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협업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소통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도덕성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
성실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발전가능성’은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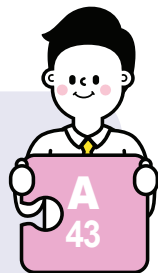
자기주도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
경험의 다양성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하나의 평가요소는 세부 평가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위의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들을 준거로 하여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교과·비교과 활동의 준비과정 및 노력, 이를 통한 성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Part3. 공통

평가요소별로 반영비율이 궁금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요소가 있나요?



대학마다 평가요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대학별로 또는 대학 내에서도 전형별로 평가요소의 배점이 다를 수도 있으며, 평가요소별 배점 없이 전체 평가요소에 대해 하나의 총점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반영비율이 있다 하더라도 **평가요소별 준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를 구분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기준과 평가내용을 제시하는 것이지 평가요소별로 정량적인 가중치를 두어 변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요소의 세부평가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학과에 적합한 학생인지 학생의 역량을 중심으로 정성적·종합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평가요소가 모두 중요합니다.

‘학업역량’은 대학 입학 후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석차등급과 같은 정량적 자료와 학업에 대한 태도와 의지, 탐구활동이라는 정성적 내용을 함께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전공적합성’을 독립적인 평가요소로 분류하는 대학들이 있으며, 몇몇 대학에서는 전공적합성을 학업역량이나 발전가능성 내의 세부평가항목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전공적합성의 평가항목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며, 학업역량과 같은 맥락으로 지원 전공을 수학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과 전공 관련 관심과 관련 경험이라는 과정을 중시하는 정성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성’은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성장과 발전 측면에서 지능이나 학업성취도 같은 인지적 특성의 역량보다 끈기, 성실성, 인간관계, 책임감, 자기조절 등과 같은 비인지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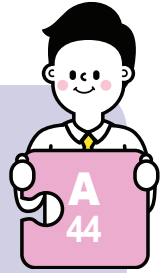
‘발전가능성’은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대학 입학 후의 생활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요컨대, 4가지 평가요소 각각이 모두 중요하게 평가되며,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Part3. 공통

서류평가 시, 교과와 비교과를 구분해서 평가하나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는 학생들이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얻은 학업성취의 수준을 의미하며,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경험한 모든 활동 내용을 의미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지므로 교과와 비교과의 비율을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과와 비교과의 내용을 평가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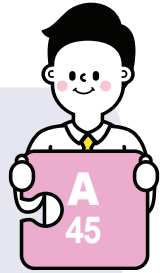
‘교과’를 평가할 때에 지원자의 석차등급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단위, 이수자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교과학습발달사항에 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비교과’의 경우에도 동아리활동, 봉사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수업시간 중 발표와 토론 등에 적극 참여하고,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평가를 하며 탐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 독서를 할 수도 있고, 동아리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교과와 비교과의 범위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비교과를 서로 연계하여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Part3. 공통

각각의 평가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어느 항목과 연결되나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연계하여 평가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학교생활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이며,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자신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연계하여 평가한다고 해서 **평가요소와 전형자료를 일대일로 대응하여 평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제출한 모든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전공적합성’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공적합성을 평가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를 확인하여 전공 관련한 교과목의 이수 정도와 수준을 파악하고,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내용으로 수업에서의 참여와 이해정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지원 전공과 연계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학생의 전공 관련한 활동과 경험은 수업시간 중 참여한 활동, 수행평가,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로 하여 평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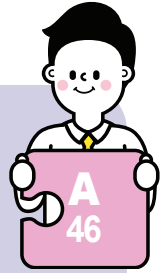
대학에서는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교육활동 참여 정도와 성취를 주로 확인하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활동의 동기와 과정, 지원자가 배운 점과 성장한 정도 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신의 역량이 나타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rt3. 공통

하나의 경험이 하나의 평가요소로만 평가되나요?



하나의 경험이 하나의 평가요소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경험이 여러 평가요소나 여러 평가항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요소별로 상응하는 경험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경험을 하나의 평가요소에 명확하게 구분하여 평가하기보다 제시된 경험 내에서 평가요소별로 상응하는 내용에 대해 각각 평가합니다.

교과활동의 경우에도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가 학업역량의 학업성취도와 일부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학업역량의 성취도가 고교교육과정에서 보인 전 교과목 및 관련 경험에서의 전반적인 성취 수준을 말하는 것이라면, 전공적합성의 성취도는 지원 전공과 관련한 일부 교과목 및 관련 경험에서 보인 성취 수준을 의미합니다. 학업역량 내에서 전공적합성이 부분 교집합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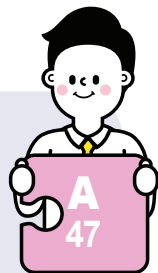
수학과 지원자의 경험을 하나의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지원자가 확률과통계 시간에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와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활동을 하며, 학급 학생들의 지각횟수 분석을 하여 학생별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평가자는 이 경험을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깊이 있게 탐구한 모습으로 학업역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는 노력으로 전공적합성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우들에게 분석결과를 피드백하여 학생들의 습관 개선에 기여하였다면 인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지원자의 지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평가할 때 학업성취도와 함께 성실성, 책임감, 협동하고 협력하는 상호관계성과 이에 수반되는 대인관계능력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하나의 경험안에서도 지원 전공 관련 활동을 강조하여 전공적합성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그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모임 내에서 협력하고 기여한 점을 나타내어 인성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Part3. 공통

N수생, 검정고시, 해외고 출신은
서류평가에서 불리한가요?
평가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지 궁금해요.



재학생과 졸업생, 검정고시 출신자와 해외고 졸업자의 평가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3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이 매년 변경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졸업생들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의 경험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졸업생이라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생활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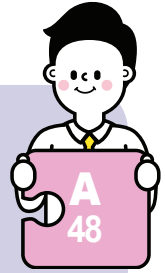
검정고시 출신자와 해외고 졸업자의 경우, 우리나라 교육부 기준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기간은 검정고시 합격 이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시기, 국외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해당하며, 활동내용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자기소개서 내용에 준하는 활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과 동일하게 공인어학성적,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경력,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외부활동 등 기재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제출여부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재학생과 동일하게 증빙서류를 일절 받지 않는 대학도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자와 해외고 졸업자에게 평가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의 학교생활 충실성을 기반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을 경우에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역량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rt3. 학업역량

우리 학교는 상대적으로 내신 등급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학교별 차이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학업역량은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업역량에서는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라고 해서 내신 등급만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 성적은 학생이 속한 집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목별 석차등급 외에도 이수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석차등급은 상대평가의 결과이기 때문에 집단 내 상대적 위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원점수가 낮아도 전체 평균이 낮아 등급이 좋을 수도 있고, 원점수는 높으나 전체 평균이 높아 등급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평균이 높다는 것은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 생길 수 있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 생길 수 있는 결과입니다. 전체 학생수가 적으면 내신 등급 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생 수의 규모도 평가 시 고려합니다. 이런 경우 등급이 낮더라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학생이 수업시간에 보여준 학습태도와 노력이 우수하게 나타난다면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업역량을 평가합니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고교에서 매년 ‘고교프로파일’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이해하여 평가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Part3. 학업역량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인문(자연)계열 학생이
자연(인문)계열로 교차지원이 가능한가요?
교차지원 시 불리한 점은 없나요?

현재 고교교육과정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의 구분이 없습니다. 관습적으로 수학과 탐구과목(과학/사회)의 이수현황에 따라서 인문·자연 계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차지원이라는 것은 고교에서의 이수과목들과 지원학과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고교교육과정을 통해 지원 전공에 기반이 되는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과정 및 진로를 확인하고 이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교과목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공학과는 물리, 생명과학과는 생명과학, 행정학과는 사회 등의 과목이 전공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과목이 중시되는 기계공학과에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하면 불리한 점이 있지만, 교육공학과는 인문계열 학생이나 자연계열 학생 모두 지원해도 무방합니다. 응용통계학과는 수학이 중요한 과목이지만 대학에 따라 인문계열 소속인 대학도 있고, 자연계열 소속인 대학도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학생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차지원을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와 지원학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원학과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강하다면 계열을 바꾸어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자는 스스로 자기 계발에 힘쓰고 진로 설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신만의 색깔로 만들어 온 학업역량과 전공 적합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어느 영역으로 결정하든 다양한 선택과목을 통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소양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므로 **먼저 자신이 원하는 공부와 학과에 대해 탐색하고, 관련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Part3. 학업역량

소인수 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 공동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이 평가에서 유리한가요?
이수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어떻게 평가되나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했다는 것은 학생의 학업적 흥미와 관심도를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소인수과목, 심화선택과목, 공동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경우, 교과목의 단순 이수여부와 교과성적만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내용, 수준, 이수과목의 경향성 등을 확인하여 정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석차등급 없이도 이수자 수, 원점수, 평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의미를 해석하여 평가하며, 자기소개서 내용과 연계하여 선택과목 이수가 지원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탐색으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측면에서 전공적합성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수준 높은 심화과목이나 전문교과를 이수한 경우 과목 이수 자체로 평가하기보다 학업태도, 탐구활동 관점에서 학업역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등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과목을 선택하여 듣게 된 동기나 자기주도적인 탐색과정 등을 확인하여 발전가능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참여형 교과활동을 중점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따라, 대학에서 수학할 전공에 따라 교과목을 신청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여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면 이러한 노력이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에 반영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에는 고교별로 소인수과목이나 선택과목의 개설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차이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학에서는 고교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평가합니다.



Part3. 학업역량

주요 교과목 이외에도 예체능, 기술·가정,
제2외국어 과목의 성적도 평가에 반영되나요?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대부분 인문계열은 국어·수학·영어·사회교과, 자연계열은 국어·수학·영어·과학교과와 세부과목 내 신등급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이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 학생의 학교생활 충실성을 반영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교과학습발달사항의 모든 내용이 평가에 활용됩니다. **주요교과목 이외의 과목들도 학업역량뿐 아니라 전공적합성, 학생의 성실성, 학교생활의 충실성 등으로 평가에 반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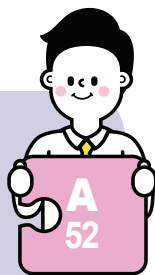
학업역량의 평가항목인 학업성취도의 평가세부내용을 보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예: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그 외 과목 성적은 전반적으로 무난한가,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가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과목의 성적은 아주 우수한데, 기술·가정, 체육·음악·미술 등 예체능 과목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경우에는 학생의 학업태도에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만 공부하거나 자신의 흥미에 따라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대학 입학 후에도 이러한 학업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성실성은 학교생활에 충실히 참여했는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런 측면에서 학생의 성실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 체육·음악·미술 등의 교과목은 전공에 따라 전공적합성에서 평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불어불문학과, 일어일문학과 등의 외국어계열 전공에서는 학생이 이수한 제2외국어의 성취도를 주요과목 성취도와 함께 살펴봅니다. 사학과와 경우 한문 성취도도 중요합니다. 아동학과와 같은 전인적 교육과 관련된 전공에서는 예체능 과목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교과 외의 과목들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다양한 과목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Part3. 학업역량

성적이 상승세여야 좋다고 들었습니다.
하락하거나 비슷한 성적을 유지한 학생은
학업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가요?



학업성취도는 고등학교 3년간의 전반적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우선 재학 기간 중의 평균적인 학업성취도를 평가합니다.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때 학년 변화에 따른 성적의 변화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의 평가세부내용에서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상승·하락하고 있는가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고른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적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평가자가 일시적 성적 하락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상황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회, 봉사, 동아리 등 다양한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적인 방황이나 가정문제 등도 일시적인 성적 하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만약 지원자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수자 수가 적은 과목의 수강 등의 이유로 성적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는 성적 하락의 원인을 살펴 합당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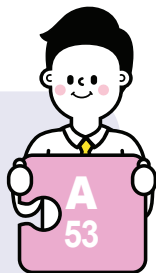
학업능력은 평가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의 학업성취도가 지원자의 객관적인 학업능력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믿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정한 성적을 보인다면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하락하는 추세 지원자보다는 상승하는 추세의 지원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자의 성적이 향상됐다는 것은 입학 후에도 어느 정도 학업 능력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학적이 변경되어 성적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원자의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고른 성적을 유지한 학생이 성적이 상승한 학생보다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성적의 변화 추이를 살피는 것은 대학 입학 후의 발전가능성을 예측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이 꾸준히 상승(또는 하락)한 학생의 경우 대학 입학 후에도 학업능력이 꾸준히 상승(또는 하락)할 수도 있으나 예전의 모습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적의 변화가 큰 학생일수록 이전 상태로의 회귀 가능성 또한 커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늘 꾸준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이런 변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학 입학 후에도 고등학교 시절 보인 꾸준함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즉 **등급의 단순한 하락과 상승 자체만으로 평가에서 유불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의 교육환경이나 지원자가 지닌 다른 역량과 종합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Part3. 학업역량

학업역량은 오직 내신 등급으로만 평가하나요?



학업역량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의 결과물로서의 학업성취도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토론·발표하고 필요한 공부를 하는 행동역량과 자기주도적 학습, 목표 설정, 학습 방법과 같은 전략역량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학업역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탐구인지, 학습태도와 열정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업역량의 학업성취도는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교과별 석차등급이 학기에 따라 수치로 표현되는 결과를 보여준다면,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 관련 사항의 발전 과정과 성장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자신이 처한 교육환경 속에서 배움을 확장시켜 나가고 토론이나 실험, 과제수행, 모둠학습 등을 통해서 보이는 학생의 창의성이나 자기주도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업과 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이 보여준 주도적인 노력, 열의와 관심, 성취수준, 다양한 탐구 방법의 모색 등 의미 있는 지적 성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평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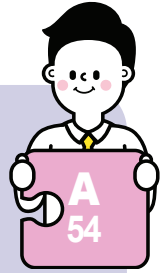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교과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학업 관련 탐구 활동을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탐구 능력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탐구 능력은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학업역량 중 하나입니다. 학업능력은 교과학습 뿐만 아니라 관심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활동, 글쓰기, 탐구 활동, 실험 실습, 교내대회 참여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역량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탐구 능력은 고차원적인 학업역량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탐구 활동은 관심 있는 분야나 교과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해 주도적인 활동을 해 나가며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 점차적으로 구체적인 탐색과 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탐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탐구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는가를 살펴봅니다. 교과 시간에 수업 내용에 대해 연계적 질문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는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수업을 수강하였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탐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수업에서 가진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거나 자신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확장해 나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Part3. 전공적합성

내가 가고 싶은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고등학교에서는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요?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원자들은 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활동을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오해로 인해 심리학대에 가려면 학교에서 또래상담부에 가입하여 상담 활동 경력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경영학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영 동아리에서 모의 창업을 하거나 관련 교내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관심, 선택 동기 등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지원 학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전공 관련한 봉사활동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호텔경영학과, 줄기세포재생공학과 등 학과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직접 연관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으며, 직접적인 활동이 아니어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적합성을 평가할 때 입학사정관은 지원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과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이외에도 관련 교과 성취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속 다양한 영역을 토대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실험을 하는 동아리 활동 이외에도 생명과학 심화 교과를 이수하거나, 생명과학 교과 수업 시간에 본인의 관심 분야를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과학 수업이 아니더라도 영어 교과 시간에 생명과학분야 영문 기사를 찾아보거나 윤리 교과 시간에 생명과학 발전에 따른 윤리 문제를 토론해보는 것도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규 교과 수업시간 내 발표, 수행평가, 토론, 주제탐구 등에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관심사를 드러내어 깊이 있는 사고를 한 경험이 있다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으로서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분야의 방과 후 수업을 이수하거나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도 지원자의 관심과 해당 분야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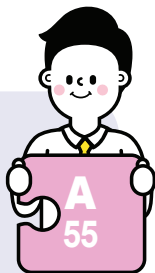
따라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험'으로 한정지어 어렵게 생각하기 보다는 학교생활 전반 어디서나 무엇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찾을 때에는 수업에서 무엇을 더 깊이 있게 혹은 확장해 공부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수업과 분리된 독립된 활동으로 활동의 가짓수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험든지 간에 여러분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Part3. 전공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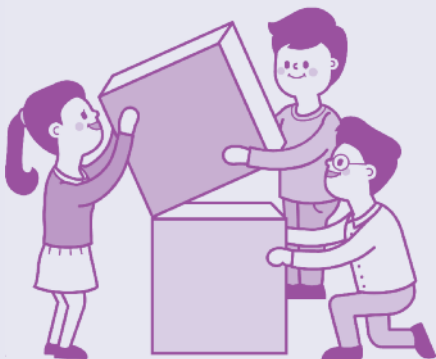
전공 관련 활동의 개수가 많아야 전공적합성 평가에 유리한가요?

전공적합성을 많은 대학에서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전공적합성을 평가하는 이유는 지원자가 대학에 입학한 후 해당 전공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전공 관련 활동의 개수가 많다고 그 학생이 전공적합성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평가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많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속에서 지원자의 관심과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전공적합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며, 반대로 활동이 많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지원자의 관심과 탐색과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전공적합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학과에 지원한 2명의 학생 중 A학생은 행정학 동아리활동을 하고 주민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관련 경험이 많고, B학생은 동아리활동 등은 없지만 문학 시간에 ‘국가’에 관련한 독서를 하고 이를 통해 행정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어 이를 사회문화 시간에 연계하여 학습한 경험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입학사정관은 반드시 A학생이 B학생보다 전공과 관련한 활동이 많기 때문에 전공적합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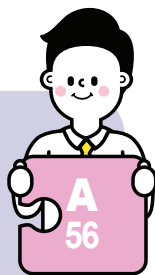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학생의 진로 탐색 과정과 전공 관련 고민의 흔적입니다. 어떤 활동이 어느 평가요소에 적합한지를 고민하여 활동의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먼저 본인의 관심사에 대한 탐색과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자기소개서에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Part3. 전공적합성

공과대학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과학 선택 교과목의 이수 여부가 전공적합성
평가에서 큰 영향을 미치나요?



대학은 지원자가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학업적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를 확인합니다.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지,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해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지,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한지의 내용으로 평가합니다. 공과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대학 입학 후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 과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성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학은 단순한 선택과목의 이수 여부만으로 학생의 전공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학생의 재학 고교나 거주 지역의 상황으로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선택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개별적인 학습 환경을 알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매년 고교에서 제공하는 고교프로파일이나 학교알리미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토대로 지원자의 교육 여건을 파악하며, 서류평가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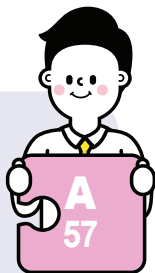
예를 들어, 기계공학대에 지원한 학생이 물리Ⅱ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이수 여부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소속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확인하여 학생의 환경을 파악합니다. 학교에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서 이수하지 못했다면 수학, 물리Ⅰ 등의 다른 과목의 내용을 종합하여 학생이 입학한 후 전공과목을 수학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물리Ⅱ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서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서 이수했다면 그러한 지원자의 노력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이나 학과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교과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온라인 수업 및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는 것도 본인의 환경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확대됩니다. 학생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에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자신의 진로 방향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조합을 통해 학생의 학문적 관심과 전공에 대한 탐색 과정을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Part3.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내신 성적이 낮은 편인데,
전공적합성에서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전공적합성의 평가에서 전공 관련 교과목의 이수 및 성취도는 전공적합성의 핵심평가항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공 관련 교과목의 성취도를 통해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해당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학업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련 교과목의 석차등급만으로 전공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공 관련 교과목 성취도의 우수성은 등급뿐만 아니라 이수단위,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참조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수학 성적이 좋은 편이라면 대학에 입학한 후에 경영학과의 재무나 회계 관련 수업을 잘 이수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리학과 지원자의 물리 과목 성적이 좋지 않다면 기초적인 학과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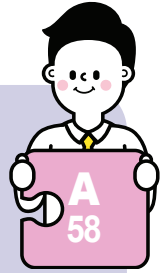
다만, 전공 관련 교과목의 성취도가 낮다 하더라도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기록을 통해 성취도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종합하여 전공적합성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관련 성취도 이외에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전공 관련 탐색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Part3. 전공적합성

학교에서 전공 관련한 탐구활동을 했어요.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학생들이 탐구활동을 어렵게 생각하여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구활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연구라든가 창의적인 결과물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구활동은 자신이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한 활동을 의미하며, 지식 자체보다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교과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학업 관련 탐구활동을 평가합니다. 탐구활동은 독서활동, 실험 실습, 토론, 발표, 교내 대회 참여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교과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해 주도적인 활동을 하며, 점차적으로 구체적인 탐색과 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수업내용에 대해 연계적 질문을 했거나 새로운 문제해결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는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수업을 수강하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수업에서 가진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교내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확장해 나갔는지 등 다양한 모습을 통해 평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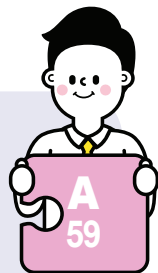
탐구능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험 실습이나, 주제탐구, 연구활동 등에서 학문적인 열정이나 지적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봅니다. 수행평가나 주제 탐구 과정에서 드러난 지적 관심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날 때 탐구활동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탐구활동의 일환으로 연구보고서나 소논문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런 활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서는 학생이 수행한 활동의 유형이나 주제의 난이도, 결과의 우수성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자신의 관심사항을 어떻게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찾아 평가합니다.

탐구활동은 학업역량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며, 전공적합성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실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고등학교 내에서 스스로 혹은 친구들과의 협업을 통해 관심분야에 대한 탐색활동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희망전공과 관련된 자신의 이해와 노력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Part3. 인성

평가요소로써 인성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서류평가요소의 하나로 활용되는 인성의 경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인성을 평가하는 것은 인재선발의 기준을 알고 있는 지식의 양보다는 실제능력으로써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연구

에서 개인의 성공은 지능 같은 인지적 역량보다 자아존중감, 성실성, 끈기, 자기통제력과 같은 비인지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이웃과 동료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되는 사회이기에 대학이 입학선발에서 인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요소로써 인성이란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성격이나 특질의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습득하거나 변화가 가능한 인간의 성품을 지칭하며, 학교 교육의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함양시켜 줄 수 있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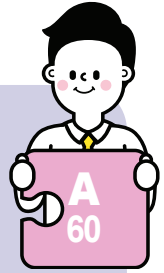
인성을 평가할 때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도덕성, 성실성 등 평가항목의 역량을 골고루 모두 갖춘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다양한 자료에서 지원자의 인성을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강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역량을 자기소개서에 사례 중심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가 봉사활동에 국한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급우들과 협력할 수도 있으며, 학급이나 동아리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규칙을 어긴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나타내거나, 학업활동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꾸준함을 나타내는 등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성 자체로 합격·불합격을 결정하지는 않으며,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다만 사범대·교대 등 교원 양성 기관은 선발에서 인성역량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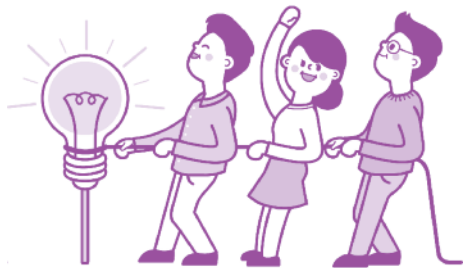
Part3. 인성

협업능력은 어떤 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나요?



학생부종합전형의 협업능력이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입학사정관은 서류평가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다양한 기록을 통해 협업능력을 확인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가지는 오해는 서류평가에서 협업능력을 판단할 때 동아리, 학생회 경험 등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기재된 사항만을 평가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이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활동 자체가 아닌, 활동을 수행할 때 학생이 어떤 자세나 태도로 임했는지,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능력을 평가할 때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처럼 좁은 의미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기록이 학생의 협업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교과 수업 시간의 모둠 활동이나 수행평가, 교내 소모임도 다른 친구들과 협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면, 교과 수업시간 내의 조별 활동에서도 주어진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협업을 하고 조원들을 위해 기여를 했다거나,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도 충분히 본인의 협업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본인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라면 자기소개서를 통해 본인의 역할과 기여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해 보이는 경험보다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본인의 협력적 자세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 있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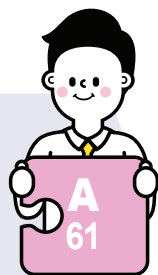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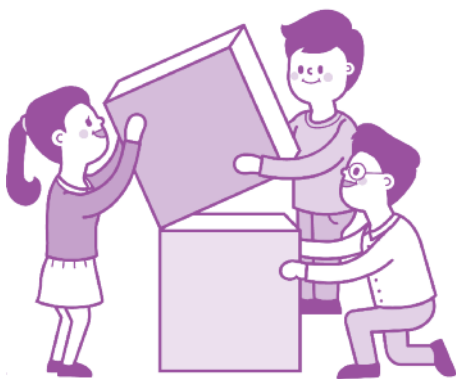
Part3. 인성

무단지각 · 결석 · 결과 등은 인성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학생의 출결상황은 성실성과 관련하여 평가에 반영됩니다. **출결상황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지원자의 무단지각 · 결석 · 결과와 같은 기록을 토대로 평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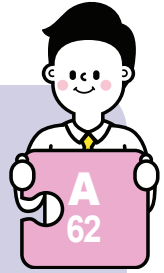
대학마다 평가기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많은 대학들이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무단’ 출결내용이 있으면 해당 영역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무단지각 1회 정도는 이 자체로 크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원자의 다른 역량들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학생의 성실성이 의심된다면 무단 지각 1회라고 할지라도 인성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지각 · 결석 · 결과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원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무단지각이나 결석이 발생한 경우, 자기 소개서를 통해 그 사유를 기재한다면 평가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Part3. 인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좋은 평가를 받나요?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초기에 비해 현재는 ‘얼마나 봉사활동을 해야 지원 가능한가요?’, ‘봉사활동은 300시간 이상이어야만 의미가 있나요?’ 등의 봉사활동 시간과 관련된 오해는 많이 해소된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지원자들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꼭 한 가지 봉사활동을 꼭 해야 하나요?’, ‘같은 기관에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등의 질문을 하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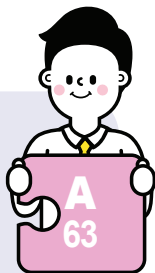
대학은 학생들에게 한 가지 봉사활동을 3년간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봉사시간의 양적인 확대를 추구하기보다 학생들이 지속적인 봉사 참여를 통해 나눔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봉사시간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내용입니다. 봉사 활동 시간이 많거나 지속적으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어떤 면에서 성장했는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입학사정관이 봉사활동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한 활동의 양과 지속성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어떤 계기나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봉사활동을 통해 어떤 점을 느꼈으며 얼마나 성장했는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자의 자발성과 봉사활동을 통한 성장입니다.





Part3. 발전가능성

주도적인 활동이 꼭 필요한가요? 자기주도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자기주도성이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개념에서 나타나듯 주도적인 활동만으로 자기주도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지원자들은 ‘저는 소극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혹은 ‘자율동아리 등을 창설하지 않으면 자기주도성이 부족한 건가요?’ 등의 고민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자기주도성에 대해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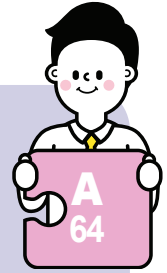
자기주도성은 실행 과정에서만 찾을 수 있는 특성이 아니라 계획하는 과정부터 실행 후 결과 분석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수업을 비롯한 학습과정과 교내 각종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즉 비교과활동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교과와 비교과활동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새로운 과제를 만들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만들어 수행하며, 일정한 성과를 창출하는지, 그리고 성과 창출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수상경력을 통해 교과 지식의 활용과 학업의지의 자기주도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수행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독서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탐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도, 기존의 활동 프로그램을 답습하지 않고 새롭게 동아리 활동 과제를 제안하거나,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제시할 수 있다면 지원자의 자기주도성을 평가하는데 반영될 것입니다.



Part3. 발전가능성

임원을 한 경험이 있어야만 리더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리더십은 특정 직위를 맡은 경험이 있는가와 상관 없이 학생이 속한 모둠, 동아리, 학급, 학교 전체 등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서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는 경험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임원 경험 자체가 리더십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임원 경험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는 역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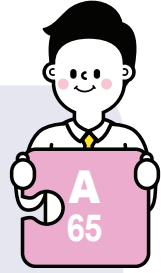
물론 리더십을 관찰하기 좋은 환경은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이 주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동아리장, 반장, 학생회장 등 일정한 직위를 맡은 학생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범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공동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도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급 환경미화를 담당한 학생이 본인이 주도하여 급우들의 청소구역과 역할을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쾌적한 학습 환경조성을 통해 학급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면 이런 행동도 리더십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행평가에서 다른 학생들이 맡기 꺼려하는 자료 편집을 자진하여 맡아 책임감 있게 완수했다면 공동체 일원에 대한 배려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자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행동이 다른 친구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지원자의 리더십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리더십을 임원 경험 등의 좁은 범위에 한정시키기 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해석하여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 역량을 드러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Part3. 발전가능성

창의적 문제해결력이란 무엇인가요?



미래 사회에는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선택, 조정,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학에서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마다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평가 활용여부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이나 전형안내책자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의적 문제해결력이란,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한 측면에서는 **교내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창의적인 발상을 평가**하며, 다른 측면에서는 **교내의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합니다.

먼저 교내 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수행평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던 경험이나 매년 동일하게 진행했던 동아리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한 일 등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창의적 발상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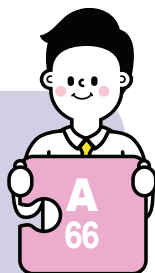
또한 교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학교 내의 다양한 경험에서 겪게 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해당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여 난관을 극복해나가는지를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교육환경을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프로그램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학생보다는 학교 상황이 열악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일정한 성취를 이룬 학생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주어진 교육환경을 극복하거나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Part3. 발전가능성

경험의 다양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 취지 중 하나는 학생들이 지나친 교과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 내의 다양한 활동 과정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고, 다양한 사회 영역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춘 학생을 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험의 다양성이 학교생활 속에서 과한 스펙쌓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경험의 양적 측면보다는 경험을 통한 성장 과정과 결과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즉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는 성장과정 및 결과를 의미합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의 방향을 학교교육 내의 경험으로 한정하여 평가합니다.

주로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주요 과목의 학습경험보다는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 예체능 영역 등에서 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 평가에 반영합니다. 이때 경험의 폭이 넓은 것이 중요한가? 경험의 깊이와 수준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경험의 폭이 넓은 경우와 심도 깊은 경험의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쌓는 것에 흥미와 보람을 느낀다면 다양한 활동 경험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면 되고, 한 영역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렇게 활동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경험을 통해서 시각이 넓어졌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나타나야 합니다.

독서활동을 통해 지적인 경험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 외에도 인문, 과학, 사회, 역사 등 인류 보편적인 지식을 경험했던 학생들의 시각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체능 활동은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신체적 능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학생은 교내의 다양한 예체능 활동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시 예체능 영역의 특별한 재능보다는 교내 예체능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영역에서 도전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적이 있는가도 평가에 반영합니다. 형식적인 참여보다는 노력과정 속에서 학생의 경험의 폭과 넓이를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



PART 4

면접

| 세부유형 |

면접유형	Q67 ~ Q70
면접내용	Q71 ~ Q78
면접방법	Q79 ~ Q83
면접준비	Q84 ~ Q88

PART 4

면

접



Part4. 면접유형

수험생에게 면접은 정말 부담되는데요.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학은 가능하면 **가르칠 학생을 직접 보고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인지, 대학의 인재상이나 지원 전공의 학생상에 잘 맞는 학생인지를 어느 정도 평가 가능하지만, 지원자가 서류평가에서 보여준 역량이 실제 있는지, 그 외에 어떤 잠재력을 지녔는지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은 서류평가의 연장선으로, 서류평가를 통해 확인한 **지원자의 역량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기록이 과장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서류평가를 통해 확인했던 지원자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서류평가자는 서류평가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면접질문으로 기록해두었다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직접 묻기도 하고, 다른 면접위원이 질문하는 참고자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지원자의 특성과 자질, 장점 위주로 질문하지만, 의심 가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내경시대회에서 수상했다면 그 대회 성격과 본인이 발표한 내용, 참가한 동기나 배경,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 매주 특정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면 그 기관에서 봉사를 하게 된 계기와 가장 의미 있었던 일,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점, 독서량이 어마어마한 경우 실제 제대로 읽었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제출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원자의 주요 활동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원자의 인성 및 가치관, 교내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도, 지원전공에 대한 열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서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사실에 기반하여 교사가 작성한 활동 중심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학생 스스로의 동기, 과정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사중심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으로는 다 보여주지 못했던, 학생 개인의 우수한 강점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원자가 평가자와 면대면으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심층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면접은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태도, 자세**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대학은 여러 단계를 거쳐 학생을 직접 만나 오랜 시간 심층적인 질문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대학이 면접을 무작정 강화할 수만은 없고 지원자의 입시 부담, 등록률, 평가요소의 변별력,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처한 상황에 맞는 면접 유형과 반영 비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Part4. 면접유형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제시문 활용 면접이 가장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면접 폐지 혹은 서류확인면접만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전형자료에 따라 서류확인면접과 제시문 활용 면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류확인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이고, 제시문 활용 면접은 대학이 사전에 출제한 제시문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하는 면접을 말합니다.

제시문 활용 면접은 학생들이 준비하는데 긴장도 많이 되고 어려워 사교육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최근 서류확인면접만 시행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종합적 사고력을 출제 문제없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가 대학의 고민이고, 지금은 최대한 제출한 서류 내용 중에서 학생의 사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질문하기도 하지만, 학생이 수행한 토론이나 발표, 실험 활동 중에서 일부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때의 상황과 행동, 결과와 느낀 점 등을 순차적으로 묻고 그 답변에 대해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과정을 통해 사고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은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확인하는 질문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참여형 수업활동이 늘어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활동이 다양해지면, 이런 기록 확인만으로도 제시문 활용 면접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 변화로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제시문 활용 면접과 구술면접보다는 서류확인면접 중심으로 면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접 폐지 여부는 대학의 상황이나 전형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은 수험생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교사가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사실인지, 독서활동 및 봉사활동 등의 기록이 신뢰할 만한지 등 서류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어 면접 폐지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대학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도록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Part4. 면접유형

제시문 활용 면접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무엇이며,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면접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대학 입시에서 헌법과 같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는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을 지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 대학은 구술면접을 시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의 정의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해석에 따라 일부 대학의 면접이 구술면접이라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통상 **구술면접**은 구술고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학생의 학업역량을 말로 평가하는 시험**을 뜻합니다.

구술면접에서는 학생에게 교과중심 문제풀이형 지문을 제시하고 이를 풀게 한 후 말로 답변하는 방식이며, 풀이 결과가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의 **제시문 활용 면접**에서는 제시문이 주어지긴 하지만 **정해진 정답이 없고 다양한 답변이 가능**해 그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지를 평가하는 면접을 말합니다.

제시문 활용 면접은 출제된 제시문을 보면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이나 이론들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사회 문제, 시사 이슈에 대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하게 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주로 살핍니다. 계열(전공)관련 기초소양과 논리적 사고력을 주로 평가합니다. 출제된 공통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5~15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전에 출제된 동일한 질문에 지원자들이 답하기 때문에 그들 간의 차이가 잘 드러나 변별력이 높은 장점도 있습니다.





인문계

2005년 미국의 한 특수 부대가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의 00 지역에 숨어 정찰을 하고 있었다. 임무 수행 중 무장하지 않은 염소 목동 두 명과 열네 살 가량의 아이와 마주쳤다. 이들은 어느 모로 보나 민간인이었기에 놓아주어야 했으나, 이들을 놓아주면 탈레반에게 위치가 노출되어 부대원 전체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다. 자신이 이 부대의 대장이라고 한다면 마주친 사람들을 사살할 것인지 아니면 놓아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자연계

최근 생명 공학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100 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 조작 기술이 DNA 상의 특정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유전자 단계에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형질을 개선하는 기술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임의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제작하거나, 유전자 조작 오류에 의한 신종 출현, 그리고 인간복제 가능성 등 인간 존엄성과 가치에 반하는 생명윤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조작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대학의 201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제시문 활용 면접 기출문제 -



Part4. 면접유형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인성면접, 심층면접, 서류확인면접 등 대학과 전형에 따라 면접방식이 다양한데, 가장 일반적인 면접방식은 어떤 것이지요?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은 어떤 관점에서 면접을 보느냐에 따라 다양합니다.

면접 구분 방식	면접의 종류
면접 요소	인성 / 학업역량 / 적성 / 인 · 적성 / 심층 / 구술
면접 자료	서류확인 / 제시문 활용
면접 방식	개별 / 집단토론 / 발표
대면 방식	1 : 1 / 다 : 1 / 1 : 다 / 다 : 다
질문 형식	구조화 / 비구조화 / 반구조화
논제 유형	사실 확인형 / 찬반 토론형 / 토의형 / 설명형 / 포괄형
기 타	역량 / 시뮬레이션

이러한 다양한 면접유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면접 중심으로 안내해보겠습니다.

첫째, **면접요소**에 따라서는 인성뿐만 아니라 수학능력, 창의력, 전공적합성,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지원자의 자질과 역량을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살피는 ‘심층면접’이 가장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일부 교대와 의대 등에서는 출제된 문제를 통해 인성과 전공적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인 · 적성면접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둘째, **면접자료**에 따라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확인면접’이 가장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셋째, **면접방식**에 따라서는 2-3명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인과 질의응답하는 ‘개별면접’이 가장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발표면접이나 토론면접을 부가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운영하지 않습니다.

넷째, **대면방식**에 따라서는 면접위원 다수가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하는 ‘다(多)대1면접’이 가장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다섯째, **질문형식**에 따라서는 평가준거와 기준에 따른 평가를 위해 사전에 준비된 공통질문과 면접위원의 재량적 질문을 함께 활용하는 ‘반(半) 구조화면접’이 가장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여섯째, **논제유형**에 따라서는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사실확인면접’이 가장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학생의 교육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살피므로 과거의 행동과 활동, 행동패턴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역량면접**’이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이러한 역량면접에서는 일명 ‘**STAR**’기법 즉, 상황(Situation)-임무(Task)-행동(Action)-결과(Result)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한번만 질문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의 깊이를 더해가는 방식인 캐묻기 면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특정기관에서 거의 매주 봉사활동을 한 것이 제출서류에 소개되어 있다면, ‘어떤 계기로 봉사를 하게 되었나요?’라고 묻고 난 후 다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나요?’,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등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 그 활동의 깊이와 성찰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은 지원자의 특성에 맞춰 각기 달리 준비한 질문을 바탕으로 평가자와 지원자가 면대면으로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지적, 정서적, 심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심층면접’,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를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한 후 면접이라는 방식을 통해 재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서류확인면접’, 과거의 행동과 활동의 양식을 통해 미래의 잠재력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역량면접’을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한다고 하겠습니다.



Part4. 면접내용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지원학과와 관련된 이론이나 지식 등도 묻는지요?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지원학과 관련 심화활동 기록이나 교육
과정 이수 기록이 있을 때, 전공과 관련된 심화된 질문을 하나요?



지원자가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잘 수학할 수 있을지 하는 관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잠재력'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전공적합성**은 대학 입학 후
전공 분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역량과 관련된 것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대학 수준의 선행지식**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학습금지법)에도 면접을 포함한 모든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출제한 공통문제를 활용하던, 서류를 확인해서 질문하던 면접의 모든 질문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나 대학 수준의 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모두 선행학습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지원전공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대학 수준의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동아리나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심화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그 활동 내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전공적합성은 지원전공과 관련된 전공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전공) 기초소양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지원동기가 어떠한지를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기간 동안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 수준, 진로희망, 전공 관련 독서, 전공 관련 수상, 동아리나 진로활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준비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지원자가 자신의 경험을 지원 전공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를 면접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보면 지원 전공 관련 활동을 다수 수행해 면접에서 질문해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답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활동 과정에서 배운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특히 지원 전공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활동처럼 보이지만 이 활동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이 과정이 대학입학 후 해당 전공을 수학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경우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대학은 전공적합성에서 전공에 맞는 활동을 특정한 몇 가지로 제한하지 않고 지원자가 수행한 활동이 지원 전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결국 면접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이라면 괜찮겠지만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지식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학도 면접위원 교육을 통해 면접 질문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Part4. 면접내용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등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서류평가 시에 판단한 역량이 실제 있는지 재확인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서류평가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체로 면접을 통해 학업역량, 논리적 사고력, 전공적합성, 인성 및 의사소통능력,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지원자가 질문에 논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지, 지원전공과 관련하여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는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시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대학 생활을 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와 활동 결과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허위나 과장은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면접에서 **학업역량 평가**는 지원자의 교과성적, 학년별 성적 변화, 과목간 편차, 학업관련 탐구활동, 동아리활동, 교과 관련 교내 수상경력, 방과후 학교 활동, 독서 등 학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지원자가 어느 정도의 학업성취를 이루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성적변화도는 어떠한지 등을 평가합니다.

전공적합성 평가는 지원전공과 관련하여 전공 관련 이수 과목과 성취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 이해는 어느 정도인지, 자신의 전공이나 진로를 정하고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전공 지식을 확인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지원 동기와 적성을 주로 확인하게 됩니다. 면접에서는 실제로 학과에 들어와서 뒤처지지 않고 잘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성 평가는 교과수업이나 교과 이외의 다양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통해 지원자가 얼마만큼 학교생활에 충실했는지, 친구들과 학교생활에서 나눔, 배려, 협력은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질문합니다. 학생참여형 교과수업활동이나 수행평가 준비과정에서 지원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교·내외 봉사활동, 멘토링 등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경험이 있는지, 학교(급) 임원 등으로 활동하며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지, 교내·외 활동 중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출결상황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등을 다양하게 평가합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세 가지 역량을 모두 물어보기도 하지만, 시간의 제약으로 서류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평가요소를 집중하여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요소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 인성,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뭐가 가장 비중이 높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면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art4. 면접내용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서 주로 하는 질문은 무엇인지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전형자료에 따라 **서류확인면접**과 **제시문 활용면접**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서류확인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참조해서 개인별로 다른 질문을 하는 반면, **제시문 활용면접**은 사전에 출제된 공통문제에 대해 준비 시간을 갖고 면접위원 앞에서 발표하고 추가로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류확인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서류확인면접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에 나타난 지원자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서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해 지원학생마다 각기 다른 질문이 만들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아래 질문은 일반적인 **서류확인면접의 예시 질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업역량

- Q1. “문학과 문화의 소통 단원에서 ‘상행’을 배우고 근대화의 이면과 소시민적 삶을 반영적 표현을 통해 나타낸 점에 주목하여 미래 귀농 추세의 증기를 주제로 하여 ‘하행’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재창작함”이라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어 있는데, 재창작한 작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친구들의 평가는 어떠했나요?
- Q2. “교내 영어구연동화대회에 원고 작성과정에서 작문 능력을 기르고, 무대 연기 준비를 통해 영어에 대한 실력과 자신을 갖게 됨”이라고 자율활동에 기록되어 있는데, 교내 영어구연동화대회에서 작성한 원고 내용은 무엇인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개인 대회였나요, 단체 대회였나요?
- Q3.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중독에서 베르누이원리 등 종이비행기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파악함”이라고 자율활동에 기록되어 있는데, 종이비행기를 멀리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르누이원리를 이용해 설명해 보세요. 베르누이원리가 활용된 다른 사례를 말해보세요.
- Q4. “동물행동학의 이해와 인간 행동의 연관성이라는 주제로 교내 탐구발표대회에 참여함. 동물의 행동 중 고정행동양식과 학습에 의한 행동과 관련해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정리해 발표함”이라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어 있는데, 동물행동학의 이해와 인간 행동의 연관성이라는 주제로 발표 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발표를 위해 참고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고정행동양식과 학습에 의한 행동에 관한 예를 들어 보세요.

■ 전공적합성

- Q1. “2학년 심리학 동아리 개설, 3학년 수학 심화문제풀이 동아리 개설”이라고 동아리활동에 기록되어 있는데, 동아리를 개설하는데 본인이 주로 한 활동은? 동아리 활동을 주로 자료조사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 이유는? 본인이 개설한 심리학 동아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 같은데, 3학년때 다시 수학문제풀이 동아리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Q2. “축제를 위한 동아리 활동 준비 및 축제 당일 행사 진행에 적극적이었으며, 조별 토론 및 ‘정의란 무엇인가’란 독서 토론에서도 직접 사회를 보며 적극적으로 이끌.”이라고 동아리활동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왜 읽게 되었나요? 학생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요?
이 책이 말하는 정의 개념을 우리사회에 적용했을 때 무엇이 정의롭지 못한가요?
- Q3. “한국의 CSI(표창원), ‘디케의 눈(금태섭)’, ‘세상을 바꾼 법정(마이클 리프)’, ‘판사 유감(문유석)’, ‘확신의 함정(금태섭)’, ‘헌법의 풍경(김두식)’, ‘숨겨진 심리학(표창원)’, 화형법정(존 덕슨), ‘법은 왜 부조리인가(레오 카츠)’ 등 읽음”이라고 독서활동상황에 기록되어 있는데, 법률과 관련된 독서와 학교에서 배운 교과공부를 바탕으로 법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말해보세요. 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Q4. “1학년 법조인 2학년 물리학자 3학년 물리학자”라고 진로희망사항에 기록되어 있는데, 진로가 바뀌게 된 시점에 영향을 준 활동은 무엇인가요? 진로가 물리학자로 바뀐 이후 진로와 관련하여 읽은 책이 있나요? 그 책에서 배운 점을 설명해 보세요.

■ 인성

- Q1. “자존심이 강하고 합리성을 추구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아까워 하다가 단체 활동에 불참한 적이 있어 급우들과 약간의 갈등이 있으나...”라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되어 있는데,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불화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친구가 자원자와 반대 의견을 계속 내세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나요?
- Q2. “1학년 53시간 2학년 64시간 3학년 55시간”이라고 봉사활동실적에 기록되어 있는데, 월 평균 2회 정도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고 3학년에도 50시간 넘게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나요? 어떤 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본인한테 봉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 Q3. “학교 봉사활동 외 개인봉사활동 시간이 거의 없음”이라고 봉사활동에 기록되어 있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서구 사회에서 왜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이 생겼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나라는 경제적 상류층이 왜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나요? 자원자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해 활동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나요?
- Q4. “1학년 학급단합대회 부반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이라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되어 있는데, 학급단합대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역할을 수행했나요? 리더십을 발휘할 때 반장과 부반장은 어떤 역할 구분이 있을까요?

- 자료 : 김경범 외(2017.2),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면접 및 구술고사 연구, 서울대 입학본부 요약발췌

제시문 활용 면접은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력, 체계적 표현력, 균형 잡힌 가치관, 건전한 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제됩니다. 각 질문에 대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고, 어느 쪽 입장이트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구체적이면서 또 균형 있는 자세로 표현하는지 평가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에 기초하고 있고,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시사 상황을 참조하여 문제를 주로 출제합니다. 대학은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대학 별고사 문제와 해설, 모범답안 등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대학 입학부서 홈페이지의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를 참조하면 됩니다.



Part4. 면접내용

서류확인면접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 중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질문하나요?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확인면접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면접 질문이 모두 있다고 하겠습니다. 면접위원은 서류평가자가 평가 시에 기록한 평가의견이나 총평을 참조하고,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대체로 면접에서는 학생을 왜 선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므로 단점보다는 지원자의 특기나 장점에 대해 질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평가 중 의심이 가는 사항이나 학생에게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됩니다.

면접에서 **학업역량 평가**는 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독서활동상황과 자기소개서 1번의 학업적 노력과 학습 경험 등을 통해 주로 질문하게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성적이 높은 과목과 낮은 과목, 성적 향상도, 관심을 두고 노력한 과목, 교과 수업시간에 발표하거나 토론한 주제, 실험한 결과물인 주제탐구보고서, 교내경시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대회 주제, 방법, 자신의 주장, 배운 점 등은 학업역량을 평가하기 좋은 소재가 됩니다.

전공적합성 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지원 전공 관련 이수과목 및 성취도, 진로희망사항과 이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상황, 자기소개서 2번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3가지), 대학 자율문항으로 지원동기와 노력한 과정 등을 통해 주로 질문하게 됩니다. 이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이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진로가 일관된 경우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진로희망이 바뀐 경우는 어떤 계기에 의해 진로가 변경되었는지, 전공 관련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등 교내에서 지원 전공 탐색과 체험활동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성 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협업 경험, 수상경력 란의 공동수상, 표창장, 자기소개서 3번의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등 실천 사례 등을 통해 주로 질문하게 됩니다.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 상대방의 어려움을 헤아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 경험, 학습 멘토활동이나 어려운 처지의 동료들을 돕는 활동, 교내 행사나 청소 등에 참여한 경험, 수업이나 교과 외 활동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경험, 학교의 규정이나 규칙을 어긴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출결상황에 무단결석·지각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제출한 서류가 다르듯이 면접 질문도 각기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지원자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면접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Part4. 면접내용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은 3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책을 읽은 지 오래 되어서 책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면접을 대비해 책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면접관이 얼마나 자세하게 묻나요?



독서활동은 서류평가 단계에서 진위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학생이 정말 읽었는지, 읽었다면 얼마나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책제목과 저자명만 기록되어 있어 그 독서의 깊이를 파악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접단계에서 **독서활동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단골 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책을 많이 읽고 다독상까지 받은 학생이라면 독서관련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위원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 이력을 통해 책을 읽게 된 계기, 관심 분야, 학과 지원 동기, 학생에게 준 영향 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책 제목과 저자명만 기록되어 있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영역이나 자기소개서와 연계하면 관심 분야의 깊이나 다방면의 교양을 살필 수 있습니다. 면접을 통해 제대로 된 독서를 한 학생과 피상적인 독서를 한 학생을 가려내고자 합니다. 흔히 하는 질문으로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줄거리와 느낀 점 위주로 소개해봐라’, ‘지원전공과 관련해서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나는 책이나, 자신에게 가장 교훈을 준 책을 소개해봐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접위원이 읽은 책 몇 권을 질문해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은 독서는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자는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몇 권이라도 제대로 책을 읽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다독보다 정독, 몇 권이라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자기를 성찰하는 의미 있는 독서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 합니다. 독서를 하다보면 자신의 관심분야가 확장되어 다른 여러 권의 책을 읽게 되어 소위 ‘꼬리물기’ 독서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관심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 읽은 책에 대해 질문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원 전공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평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배울 전공서적인 경영학원론을 찾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읽은 책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면접위원도 세세한 줄거리까지 기억하는지를 확인한다기보다는 **간략한 줄거리와 기억나는 문구나 장면, 책을 읽게 된 이유, 자기에게 미친 영향, 느낀 점 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혹시 면접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그때의 기억을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빠르게 책을 훑어보는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혹여 면접 중 책 줄거리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느낌이었다고 기억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설명하면 됩니다.



Part4. 면접내용

면접에서 대학이나 지원학과 인재상과 관련된 질문도 하는지요?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이전의 입학사정관전형은 대학의 시험 성적 위주의 학생선발 방법에서 벗어나 잠재력과 소질, 대학의 설립이념, 발전전략 및 각 모집단위의 특성을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대학은 다양한 전형자료를 통해, 학생의 잠재력 및 소질을 평가하여 입학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두어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현재 드러나지 않지만 장래에 발현될 능력인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학과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인재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서는 지원학과 인재상에 맞는 학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원 동기와 고등학교 생활 중 지원 전공과 관련한 준비와 노력 등에 대해 질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의 경영학과는 인재상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통찰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및 유연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능력, 도덕성 및 국제적 감각을 겸비하여 기업의 성장과 사회기여에 대한 의지를 갖춘 인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들은 이런 학과 인재상에 맞는 학생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전공적합성을 지원학과에 적합한 활동이 따로 있는 것처럼 좁게 해석하지는 않으며, 인문/사회/자연/예체능 등 계열적합성 정도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대체로 ‘글로벌’ ‘창의’ ‘전문’ ‘봉사’ 등을 인재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대학의 인재상까지 질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대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면접 전에 대학 홈페이지에서 창학정신, 인재상, 연혁 등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고등학교 생활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대학 및 지원학과 인재상에 대한 질문은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신이 입학할 대학과 지원전공에 대한 심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공에 대한 최소한의 올바른 이해를 기대**합니다. 해당 학과에 입학해 졸업 후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를 위해 이 학과를 선택했다거나, 해당 전공을 수학하더라도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지원했다거나, 해당 전공에서 가르치지 않는 분야를 배우기 위해 지원했다거나, 해당 대학에 지원자의 진로 희망과 일치하는 다른 전공이 있음에도 이 학과를 지원했다고 한다든지 등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학과 지원학과 인재상은 면접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Q77



Part4. 면접내용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던데요. 주로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A77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서는 **평가요소의 역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출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기록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나 과장은 없는지, 그 서류상의 결과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참여가 형식적이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서류평가 시 참조한 평가 자료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면접을 통해 재확인함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활동을 관찰한 교사가 기록하고,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직접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 **허위나 과장, 누락은 없었는지를 면접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입학사정관은 일차적으로는 제출된 서류상에 기록된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면접을 통해 그 활동의 진정성, 경험과 성찰의 깊이를 다시 한 번 평가**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런 의미에서 학교 활동에 기반해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없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그 기록이 사실인지 여부를 면접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허위 정도는 아니지만 과장은 없었는지도 면접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로 학생의 활동과 경험에 대해 심층면접방식을 활용합니다. 예컨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된 수업시간에 발표한 과제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학생은 어떤 역할을 했고, 최종 결과는 어땠는지를 질문합니다. 학교의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했는지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 자율동아리는 개설만 하고 활동이 거의 없었는지 오랜 시간을 투입해 의미 있게 활동했는지를 질문합니다. 수상경력란에 공동수상을 받은 경우 어떤 대회였고 학생의 역할은 무엇인지, 선행·효행·봉사·모범, 학교 인재상 등을 표창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부여하는지,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기록된 내용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상적으로 답변한다면, 과장된 기록으로 판단해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제출 서류의 기록만으로 다 보여주지 못한 부분을 면접에서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작성하는 기록물로 학교 활동과정에서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와 노력과정 등까지 상세하게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면접을 통해 제출서류 기록 과정에서 누락된 학생만의 주도적인 활동, 배우고 느낀 점 등의 성찰과정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면접위원들은 제출 서류에서 미처 못 본 특기나 장점, 잠재력 등이 있는지를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Part4. 면접내용

평소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력이 부족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면접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대학이 면접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표현력이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들어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은 말 잘하는 학생을 뽑기 위해, 또는 표현력이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말을 잘한다고 해서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면접에서는 **유창한 말솜씨보다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질문의 핵심 내용을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서류의 진위성 여부 확인도 면접의 주요 기능이므로, 지원자는 서류에서 제시한 다양한 활동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면접관의 질문에 서류와 일치하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진솔하게 임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면접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Part4. 면접방법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관 구성이 궁금합니다.
몇 명의 면접관이 평가를 하고, 서류평가를
담당한 입학사정관이 면접에 들어오나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의 **면접관은 각 대학에서 선임된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됩니다. 입학사정관은 전임입학사정관과 위촉입학사정관으로 구분되는데, 전임입학사정관은 대학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촉입학사정관은 학과 교수와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되며, 서류 및 면접평가 기간에 맞추어 위촉되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접평가는 대체로 전임 및 위촉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되지만, 면접의 규모 및 대학의 상황에 따라 일반 학과교수가 참여하기도 하는 등 학교의 특성과 운영 방침에 따라 대학마다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이론교육, 모의평가 등 기준 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면접평가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세부 면접관 구성은 대학의 상황에 따라 **서류평가위원과 면접평가위원이 동일할 수도 있으나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서류를 평가한 위원이 면접에도 참여하도록 운영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서류평가자와 면접평가자가 동일하면 사전에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서류평가 시 궁금했던 사항들을 면접에서 보다 수월하게 질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면접평가자의 입장에서 평가가 보다 힘들지 않게 진행될 수 있지만,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에 참여하는 평가자는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면접대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자의 주요활동과 관심영역 등을 이해한 후, 개별질문을 구상하여 면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서류평가자가 서류평가를 하면서 지원자에 대해 기재한 사항들(특이점, 궁금한 점 등)을 면접평가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동일 평가자가 하거나, 또는 각각 다른 평가자가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으므로 면접 준비는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대학별로 차이는 있으나 개별면접의 경우, **면접관 2~3인 대 지원자 1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면접관이 여러 명이므로 질문은 다각도로 이루어지며,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수험생의 대답을 다른 면접관들 전원이 주목하고 관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한 면접관이 물더라도 질문을 한 그 면접관에게만 응답한다는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면접관 전원을 향해 대답한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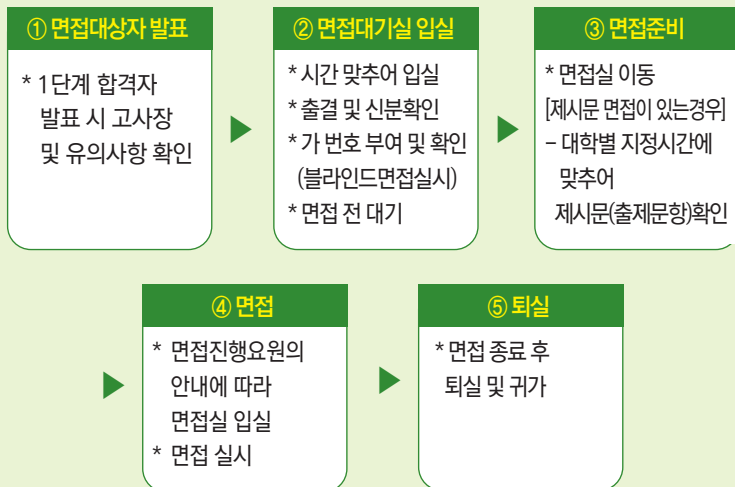
Q80



Part4. 면접방법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면접은 서류에서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면접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의 가치관, 태도, 지원동기, 전공적합성, 품성 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면접의 절차는 대학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면접대기실에서는 진행요원을 통해 출석 및 신분확인을 실시하며, 대부분 대학에서 블라인드면접을 실시하게 되면서 가 번호 부여 및 확인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작업이 완료된 후, 본인의 면접순서가 되기 전까지는 개인이 소지한 책이나 면접관련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일부 대학에서는 금지). 대기실에서 개인 자료를 보며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면접실로 이동을 합니다. 이 때, 면접 순서는 대학에 따라 수험번호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가 번호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실로 이동 후, 제시문활용 면접이 없는 경우는 바로 면접실로 입실을 하지만 제시문(출제문항)활용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면접 준비실 혹은 면접실 앞)에서 대학별로 지정한 시간(대체로 5~10분) 동안 제시문 확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면접실 입실 후에는 개별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면접 도중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유추단서를 제공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숙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면접실에 입실하면서 수험번호를 언급한다거나 이름이나 출신 고교등을 언급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면접이 종료된 이후에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개인 소지품을 챙겨 퇴실 후 귀가를 하면 됩니다.





Part4. 면접방법

면접관(입학사정관, 교수)이 여러 명일 때,
학생 평가가 서로 다를 경우 점수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평가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한 사람의 평가가 크게 영향을 주기 어렵도록 다수의 평가자(2~3인)가 면접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평가자의 독립평가**로 이루어지며 평가자 간의 견해가 일정 수준 이상 차이를 보이면 일부 대학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평가된 점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면접관의 주관으로 지원학생의 당락이 결정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면접관 간의 점수 차이가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각 **면접관이 부여한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면접점수가 반영**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점수 차이가 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평가된 점수가 반영되거나, 대학에 따라서는 평가위원 개개인의 평가를 존중하여 평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면접을 진행하기 전, 면접관을 대상으로 각종 이론 교육(면접기법, 평가기준 등) 및 모의 면접 등을 통해 평가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1명의 학생에 대한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Part4. 면접방법

일반적인 면접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출제문항 면접의 경우 문제를 보는 시간을
별도로 제공하나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시간은 대학별 그리고 전형별로 편차가 크며,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정도 진행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0분 내외’ 수준으로 개별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출제문항)이 있는 면접의 경우, 면접실 입실 전 문제를 보는 시간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출제문항)은 별도의 장소(면접 준비실 또는 면접실 앞 공간)에서 확인하게 되며, 대학에 따라 5분~20분 정도의 준비시간을 제공 합니다.

면접실 입실 후 면접관은 지원자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간단한 인사말, 가벼운 질문 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원자가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리고 준비가 되면 면접위원이 지원자에게 궁금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물어봅니다. 제시문(출제문항)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에 대한 추가질문을 먼저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주요활동 및 기타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 때, 특정 분야에 대해 한 번만 묻는 경우도 있고, 지원자의 답변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의 깊이를 더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000에서 000 봉사활동을 한 것이 제출서류에 소개되어 있는데 봉사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나요?’라고 묻고 난 후 다시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행동 변화가 있었나요?’, ‘본인의 행동 변화가 없었다면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요?’ 등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그 활동의 깊이와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접관의 물음에는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한다거나 혹은 지나치게 장황하게 말하는 학생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과 면접을 진행하는 10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짧게 핵심을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괄식으로 답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아니오’처럼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할 경우,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확인하고 싶은 요소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면접이 거의 끝나가는 마무리 단계가 되면 지원자가 하고 싶은 말이나 면접위원의 인사말 등으로 면접이 종료됩니다. 수험생들은 면접관의 질문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답변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Part4. 면접방법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으로 합/불 결과가 달라지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은 지원자의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입니다. 대학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면접평가 과정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학생이 경험한 각종 활동에 대한 진위 여부, 논리적 사고력,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과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대부분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 반영비율은 **대학마다 전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형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한 번에 선발하는 일괄선발과 단계별 전형을 거치는 단계별 선발이 있습니다. 서류와 면접평가 점수를 일괄 합산하는 방법, 서류를 통해 일정배수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단계별 방법이 있습니다.

| 전형유형별 면접의 중요도 |

구분	A 전형	B 전형	C 전형
전형방법	서류평가60 + 면접40	1단계:서류평가100 (3배수) 2단계:1단계70+면접30	1단계:서류평가100 (3배수) 2단계:면접100
면접의 중요도 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위 세 가지 경우 중 최종 단계에서 서류의 영향력을 배제한 세 번째 경우가 면접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괄 합산하여 선발하는 경우, 1단계 성적과 면접평가 점수를 합산한 단계별 전형 순으로 면접 비중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면접평가 성적에 따른 합격·불합격 변동 인원을 통해 면접의 실질 영향력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모집요강에 공개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과 실질 반영비율을 비슷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대체로 면접반영비율이 30~100%까지 다양해 **유불리를 잘 따져보고 지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단계 성적과 면접평가 성적을 합산하는 단계별 전형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를 통과한 지원자들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면접평가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야만 실질 반영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의 총원율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미등록 총원과정에서 미등록자가 많아 추가합격자가 많이 발생하면 면접의 실질 반영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단계 서류평가로 3배수(300%)인 30명을 선발하고 1단계 성적 70%와 2단계 면접 30%를 반영하여 최종 10명을 선발한 경우,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자가 발생하여 25명이 최종 합격한 경우 면접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면접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거의 대다수 학생이 서류평가 성적 순위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시 6회 지원으로 대학간 중복합격자가 늘어나 **총원율이 높아지면, 면접의 영향력이 낮아진다고** 하겠습니다.



Part4. 면접준비

면접에서 나쁜 평가를 받을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또한 면접에서 지원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면접관 앞에서 고등학교 기간 동안 노력한 바를 평가받다 보니, 많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긴장**을 하면 첫 질문부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후 질문부터는 준비한 바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면접실 문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면접관 입장에서도 매우 아쉬우나, 지원자 본인이 가장 아쉬울 것입니다. 면접평가에서는 모두가 긴장을 합니다. ‘나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출제문항 면접이 있는 경우, 많은 수험생이 범하는 문제는 처음의 답변과 마지막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여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제시문이 나온 경우, 분명히 ‘찬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면접관의 반론 질문 이후 ‘반대’의 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수험생이 제시한 논리의 일관성이 떨어져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면접관이 반론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논리를 일관성 있게 끌고 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논리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식의 답변**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러한 답변은 많은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만 할 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네’, ‘아니오’와 같이 **지나치게 단답형인 대답**도 면접관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감정조절이 안되거나** 지나치게 긴장하여 울음을 터뜨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출제문항 면접과 서류재확인 면접 모두 매우 잘 해낸 학생이 마지막 자유발언 시간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거나, 본인이 예상한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답변을 잘하다가 생각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면접 도중에 울음을 터뜨리게 되면 남아 있는 면접시간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수험생 본인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면접 시간이 수험생에게 긴장되는 시간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감정조절을 잘 하여 후회 없는 면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 태도에 있어 정답은 없습니다만, 답변을 하는 데 있어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않고 이유 없이 다리를 많이 떨거나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서 답변**을 한다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손동작, 지나친 표정,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수험생의 본분에 맞는 태도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art4. 면접준비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년도 면접 기출문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은 주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로 진행됩니다. 즉, 1단계 서류평가에서 평가자가 지원자의 강점과 자질로 인정한 점,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리더십이 탁월한 학생은 리더십 활동의 의미, 독서활동이 풍부한 학생은 독서기록에 대한 확인을, 전공적합성이 우수한 학생은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의 의미를 면접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때, 학생이 제출한 서류와 면접에서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서류의 진위여부에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을 참여하기 전 **제출한 서류들의 기록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와 일치하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여야 합니다. 물론, 서류에 기반한 면접을 한다고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 혹은 예상 질문을 통째로 암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학교생활동안 **본인이 꿈을 위해 걸어온 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계기로 본인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학과(전공) 진학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실천하여 왔는가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면접평가에 참여하기 전, 예상 질문을 도출하여 연습을 하고 옵니다. 이러한 연습은 면접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 질문별 답변을 완벽하게 스크립트로 작성하여 외워서 답변할 경우, 면접관 입장에서 그 답변이 너무 외운 티가 나서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접을 준비할 때, 예상 질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연습은 하되, 각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벽한 문장으로 작성하여 암기하기 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답변을 정리해 두면, 면접관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접은 확실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편한 상태에서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형식적으로 실제 면접과 같은 상황을 통해 긴장감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모의면접을 진행**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의면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의 전체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함께 보며 피드백을 해보면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역량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닌 만큼 **수업시간과 토론시간을 활용하여 짧고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과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면접기출문제 및 각 대학별 면접고사 준비를 위한 정보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와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책자**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사이트(<http://adiga.kr>)를 통해서도 면접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Part4. 면접준비

학생부종합전형에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된다고 들었습니다. 면접 때 교복을 입어도 되나요? 면접 중 실수로 다니고 있는 고교명이나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2019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평가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실시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란 지원자의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 지원자에 대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를 가린 채 면접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블라인드 면접 도입에 따라 개인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복장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복 착용은 불가**하며, 교복 이외에도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특정 기관 관련 복장(체육입시학원 또는 특정기관의 단체복 등)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수험생이 실수로 교복을 착용하고 면접대기실에 입실한 경우, 각 대학에서는 별도의 복장(후드티 또는 가운 등)을 제공하거나 고교명이 보이는 부분을 테이프로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면접도중 개인의 신분을 노출하게 되면 그 순간 면접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면접실에 입실하며 ‘안녕하세요. OO고등학교 000입니다.’라고 인사를 한다거나, ‘제가 다니는 OO고등학교에서는 000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000에 근무하셔서’ 등의 **신분을 추론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언급하면** 그 순간 면접관은 ‘개인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됩니다’ 등의 **엄격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받게 되면, 안 그래도 긴장되는 면접상황에서 지원자는 더욱 긴장을 하게 될 수 있으며, 대학에 따라서는 감점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Part4. 면접준비

면접 보러 갈 때 휴대폰을 가지고 가도 되나요?
대기실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휴대폰 벨이 울리면
부정행위자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두고 가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고사 종료 후, 부모님과 연락을 하기 위해 또는 또 다른 이유로 휴대폰
을 가지고 대기실에 들어갈 경우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전화기를 끈
상태로 입실**해야 합니다.

특히, 출제문항 면접이 있는 경우, 문제 유출과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엄격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방을 모두 앞으로 제출
한 상황에서 가방 속에 있는 휴대폰이 울리는 경우도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이렇듯 엄
격한 상황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학교에서 지필평가를 볼 때처럼 휴대폰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Part4. 면접준비

면접을 보러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수험표나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면접을 보지 못하나요?



면접고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면접고사 수험생 유
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개별 대학이 안내하는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학생이 챙겨 와야 할 준비물과 함께 중요한 유의사항이 자세히 기
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의 고사 일정과 고사장소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간

혹 수험표나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이 있는데, 면접고사장에 수험표나 신분증을 가지
고 오지 않아도 면접에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수험표 미 지참 시, 고사본부에서 스스로 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신분증 미소지 시에는
‘신분증 미소지자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면접고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미소지자의 경우, 사진촬영과 서약서 작성 등의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고사 종료 후, 입학처를 방문하여 본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실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므로 개별 수험생이 본인이 준비해 온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애초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면접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험생은 면접 전날 교통편과 함께 수험표와 신분증 등의 준
비물을 꼼꼼히 챙기고 유의사항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



PART 5

전형결과 및 기타

| 세부유형 |

평가결과	Q89 ~ Q90
고교별 특징/고교정보	Q91 ~ Q95
지역별 특징	Q96
합격사례	Q97 ~ Q98
유사도	Q99 ~ Q100
기타	Q101



Part5. 평가결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내신성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학생들은 지원 대학과 모집단위를 결정할 때 자신의 관심사 및 희망 진로를 가장 크게 생각하지만 진로의 방향성이 유사한 모집단위들을 서로 비교하여 결정할 때는 전년도 합격자 성적을 참고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의 대교협 “어디가”를 비롯해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는 경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과 정보’를 통합 검색한 다음에 입시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및 ‘성적분석’에서 자신의 성적을 기입한 다음에 대학별 성적분석을 통해 비교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전형정보’를 통해 대학, 학과, 전형을 검색한 후 분석 메뉴를 통해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전형정보’의 경우는 비교 분석 기능을 통해 대학별 전형을 비교할 수 있고, ‘성적분석’을 활용할 경우에는 관심 있는 여러 모집단위들의 입시결과까지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전년도 합격자 내신성적을 살펴보면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이 1등급대부터 5등급대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6,7등급대 학생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 내신 등급의 분포는 전 등급대에 걸쳐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학업역량은 단순히 내신 등급만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평가기준으로 삼는 학업역량은 대학 입학 후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업역량에서 정량적으로 나타나는 내신등급은 학생의 학업역량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이지만, 이 외에도 과제수행내용을 포함해 토론·발표·실험과 같은 수업활동, 비교과 활동인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학교, 교내 경시대회 등에 참가하는 과정 및 성취를 통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학기에 학생의 교과 성적이 떨어졌을 때, 단순히 그 학생의 학업역량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학생이 어떤 다른 활동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다른 활동에서 학업과 관련된 우수성을 찾을 수 있다면 내신만을 가지고 평가 수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즉,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학업역량의 평가는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종합평가에서는 학업역량뿐만 아니라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를 하므로 학생의 내신성적만을 고려하여 지원 희망 대학과 모집단위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되는 전년도 입시 결과는 서류와 면접을 통과한 합격자들의 내신성적일 뿐이므로 이 자료를 활용할 때는 그것을 절대적인 자료로 생각하기보다 참고자료 정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Part5. 평가결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모집단위별(학과·학부별)로 내신성적에서 차이가 많이 나나요?



모집단위별(학과·학부별) 전년도 경쟁률과 내신성적은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대교협 of “어디가”를 비롯해 각 대학의 입학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내신성적은 모집단위에 따라 수준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양한 평가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안에서도 세부 전형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모집단위라도 각 전형의 특성에 따라 내신성적이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서류평가에서 다른 평가자료와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이 서류와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의 경우, 얼마 전까지는 우수한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서열화 되어 있던 일부 모집단위로 몰리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높고 평가점수가 우수한 학생들이 몰린 모집단위의 결과를 보았을 때 합격자들이 높은 내신 등급대를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과의 서열화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져서 내신성적 수준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도 약해진 편입니다. 과거에는 자연계열 공부를 하는 학생이 교과 성적이 우수하면 무조건 의과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경향이 컸으나 요즘은 본인의 관심사를 살려서 다양한 전공에 지원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쟁률이 낮더라도 해당 모집단위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우수한 학생이 지원하면 합격자의 서류와 면접성적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 등에 따라서 합격권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성적을 가지고 합격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서류와 면접을 통과한 합격자들의 성적을 분석해 보면, 모집단위별 합격자의 내신성적 분포는 크게 차이가 나는 편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지만 경쟁률이 높은 모집단위의 내신성적 결과가 반드시 높은 것도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이는 대학이 학생의 학업역량을 평가하는 방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서류평가에서 학업역량은 내신 등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성적을 포함하여 학생의 학업태도, 학업 관련 다양한 활동, 전공적합성(계열적합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신 등급의 평가에 있어서도 내신 평균 등급이 다른 학생보다 다소 저조하더라도 지원하는 모집단위와 관련된 교과 성적에 우수하다거나, 학기별 성적 향상 변화 추세와 수업에 대한 참여도, 동아리 및 다양한 학교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지원자의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원할 모집단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내신성적 또는 학업성취도에만 의거해서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학업태도, 학업 관련 다양한 수상 및 활동, 전공적합성(계열적합성), 학업 외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에 맞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Part5. 고교별 특징/ 고교정보

학교의 상황에 따라 대회, 행사, 교육과정 간 차이가 발생하는 데, 이런 경우들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대학은 학교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어떤 교육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학교는 교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며 관심분야에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반면에 어떤 학교는 학생들의 비교과활동을 지원해주기 보다 수치화되는 성적에 치중해서 고교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고등학교를 본인의 선택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학 측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의 교육환경 자체가 아니라 해당 학생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선택과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어떤 성취를 보였는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됩니다.**

소속 학교에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에 학생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곧 학생에 대한 우수한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학생이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성장하였는지가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학생이 해당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많이 노력하고 많이 성장했다면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학생이 어떤 동기나 계기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으며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입니다. 학생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무엇을 배웠고 향후 어떤 것에 도전해보고 싶은 목표가 생겼는지를 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의 특성과 학생의 성장과정을 그려봅니다.

한편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학생이라면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의 기초가 필요한 전공에 지원한 학생들은 물리Ⅰ,Ⅱ를 이수하여 학업능력의 기초를 다져두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물리Ⅱ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서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학생이 자신이 속한 학교를 탓하고만 있기보다 스스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어떤 노력을 노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독서활동을 통할 수도 있고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심화공부를 시도해볼 수도 있으며 학교나 교육청에서 개설한 클러스터, 소인수 강좌, 온라인 수업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Part5. 고교별 특징/ 고교정보

학교에서 제공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며, 학교를 평가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내활동이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른 지원자보다 부정적 평가를 받을까 걱정스러워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학은 학교에 따라 학생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합니다. 고교정보시스템의 고교프로파일(학교소개서)을 참고하는 등 학생 개인이 처한 교육적 환경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간에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게다가 학생부종합전형은 단순히 결과만을 평가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양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다는 것이 우수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진정성 없는 봉사시간이 양적으로 많은 것 등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양만 늘리는 활동에 불과할 뿐 학생의 열정이나 적극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에 한계를 가집니다. 대학은 학생이 처한 교육환경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과정과 성취를 모두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양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성과에 욕심을 내기보다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보충이나 심화의 과정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 개인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실시 이후 고무적인 점은 고교교육과정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 수업방식에서는 토론식·발표식·프로젝트식 수업이 증가하였고, 심화과목 개설이 증가하였으며,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학교의 교육환경이 매년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 환경에 처한 학생들은 그 교육환경을 탓하기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활동을 고민해 보고 도전을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학교나 선생님과의 논의를 통해 학교 안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체험 및 탐구의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은 스스로 찾아가는 공부입니다.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해 책을 찾아 읽고 궁금증이 생기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생기면 관련 자료를 좀 더 찾아서 탐구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해도 좋고 친구들과 함께 해도 좋습니다. 물론 주변의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도 좋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우수성은 학생이 처한 교육환경이 어떠하든지 학교 안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했는지를 통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 우수성은 스스로 관심분야를 심화시키거나 확장시켜나가려고 노력해 가는 과정에서 보일 수도 있고, 평소 자신이 관심 있는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Part5. 고교별 특징/ 고교정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고교프로파일이 어떻게 활용되나요?



고교프로파일(학교소개서)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지원자의 고등학교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고교프로파일의 기본 내용은 개별 고등학교에서 작성하며, 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취합하여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대학에 제공합니다. 표준화 된 양식의 고교프로파일을 대학에 일괄 제공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신뢰 높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고교프로파일을 통해 고등학교의 기본현황, 교육환경 및 구성원 특성, 교육과정 운영 현황, 동아리 활동 개설 및 운영 방식, 교내 시상 내역, 3개년 교육과정 편성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고등학교 현황 및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과나 기계공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물리Ⅱ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입학사정관은 고교프로파일을 통해 교육과정 개설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고등학교 사정으로 인해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도 고교프로파일을 통해 지원 학과 관련 동아리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교프로파일은 학생의 교육 환경을 이해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학교 교육여건에 따라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에서의 심화과목 수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에 의해서 학생의 성취나 역량이 평가절하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교프로파일을 통해 학교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교프로파일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파악한 뒤, 주어진 환경에서 했던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이 보여준 노력과 학생의 성장도 함께 평가합니다. 이외에도 고교프로파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고교프로파일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정보 공유의 자리도 갖습니다. 고교프로파일을 통해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개별고교 또는 지역에 따라 어떤 특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이 고등학교 방문 시, 해당 고교에 필요한 진학 정보를 전달하고 고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 교사간담회나 교육청 설명회에서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고교프로파일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Part5. 고교별 특징/ 고교정보

고교의 전년도 입시결과가 출신 고등학교의
후배들 서류평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전년도 신입생의 진학 실적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대학이 실시하는 매년의 입학전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입시와 관련하여 오해를 하는 부분은 대학이 전국의 고등학교에 대해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있고, 특히 진학 실적을 통해 각 고등학교의 수준을 가늠해서 학생을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시에서 평가는 각 개인을 기본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부종합전형 평가에서는 학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성장하였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입학사정관들은 진학 실적이 몇 년간 없던 고등학교라면 대학 입학 정보가 부족한 소외 지역이 아닌가를 검토하고 고등학교에서 정보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학은 정보소외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활동이나 모의전형 등 전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합니다. 그리고 신설 고등학교가 있을 때는 그 고교교육과정이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학생부종합전형은 해가 거듭될수록 대학별로 입학생 배출 고등학교의 수가 증가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성을 지향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Part5. 고교별 특징/ 고교정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고등학교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서울 소재 10개 사립대학에서 3년간(2015~2017학년도) 입학한 학생들을 전형 유형별로 나누어서 고교유형별 현황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학생부종합전형 3년의 성과와 고교 교육의 변화」 심포지엄에서 '서울 10개 사립대학 입시 결과 및 입학생 대학생활 적응도 조사'라는 자료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 10개 사립대는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입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10개 대학의 2017학년도 고교유형별 최종등록자는 일반고가 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특목고가 15.2%, 자사고가 11.7% 등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학전형 유형에 따른 고교유형을 살펴보면 2017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일반고가 63.5%, 특목고가 15.5%, 자사고가 8.3% 정도 입학하였으며, 수능위주전형을 통해서는 일반고가 61.6%, 자사고가 16.9%, 특목고가 13.7% 정도 입학하였습니다. 2017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은 일반고와 특목고 출신자가 각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자사고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비해 수능위주전형과 논술위주전형에서 합격자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 2017학년도 전형유형에 따른 고교유형별 최종등록자 현황(10개 대학 종합)

고교 유형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위주		실기위주 (특기자 포함)		수능위주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일반고	6,595	63.5	2,062	92.0	4,443	68.9	1,226	36.0	6,633	61.6	20,959	63.0
자공고	462	4.5	142	6.3	294	4.6	64	1.9	499	4.6	1,473	4.4
특목고	1,607	15.5	30	1.3	619	9.6	1,317	38.6	1,479	13.7	5,052	15.2
자사고	859	8.3	5	0.2	976	15.1	216	6.3	1,823	16.9	3,879	11.7
특성화고	757	7.3	3	0.1	7	0.1	124	3.6	126	1.2	1,017	3.1
기타	90	0.9	-	-	107	1.7	463	13.6	203	1.9	863	2.6
합계	10,382	100.0	2,242	100.0	6,446	100.0	3,410	100.0	10,763	100.0	33,2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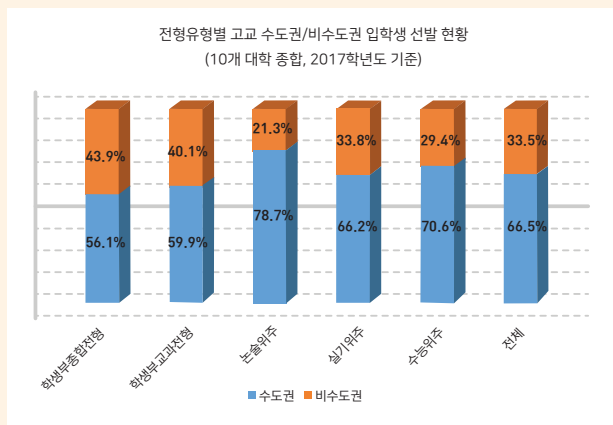
요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특정 고교유형 출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고교유형별 분포는 일반고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고교 유형별로도 고르게 선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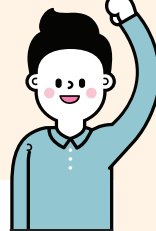
Part5. 지역별 특징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출신 지역별로 보이는 특징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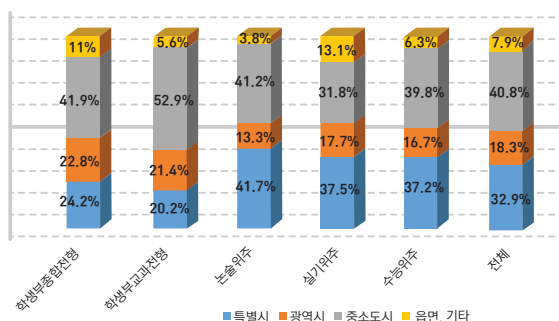
서울 소재 10개 사립대학에서 3년간(2015~2017학년도) 입학한 학생들을 전형 유형별로 나누어서 지역별 현황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 10개 사립대는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입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2017학년도 입학생의 지역별 합격비율은 수도권 66.5%이고 비수도권 33.5%입니다. 이 중 수도권 학생의 전형별 합격비율을 보면 논술위주 전형이 78.7%, 수능위주 전형이 70.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56.1%, 학생부교과전형은 59.9%로 학생부위주전형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주민등록상 수도권 인구비율은 거의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비율을 감안하면 논술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은 수도권 편중이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생부위주전형은 지역분포가 비교적 실제 인구 비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형유형에 따른 고교 지역별 입학생 선발 현황
(10개 대학 종합, 2017학년도 기준)



그리고 도시규모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시 비율이 32.9%, 광역시 18.3%, 중소도시 40.8%, 읍면·기타 7.9%입니다. 이중 특별시 출신 학생의 전형별 합격비율을 보면 논술위주 전형이 41.7%, 수능위주전형이 37.2%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24.2%, 학생부교과전형은 20.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 입학생은 점수 위주의 수능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 학생들은 대개 학생부위주전형을 중심으로 합격을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심포지엄의 발표 이외에도 대학들은 매년 다양한 워크숍이나 교사간담회에서 입학전형별, 지역별,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 결과들은 위에서 확인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이 타 입학전형보다 지역별 격차가 적은 전형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지역 균형성에 가장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해보면, 학생 구성의 지역별 다양성을 잘 구현해나가는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은 향후 대학이 변화하는 미래에 대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Part5. 합격사례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사례를 공개해주실 수 있나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은 학생 개개인의 교육 환경과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종합평가·정성평가이기 때문에 합격 사례를 일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르게 성장한 지원자들의 경험과 그 과정은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자료인 학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에 대해 합격 사례를 선별하여 공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학에서 제시한 합격 사례가 학생부종합전형의 표본이 되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해당내용을 모방하거나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합격 사례에 제시된 활동을 함으로써 활동다양성이 줄어들고 고교 프로그램이 정형화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사례를 공개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공개하는 경우에도 개인 정보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공개하기보다는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 우수 학생 수기나 합격생 인터뷰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각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파일 형태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지역별 수시 박람회나 설명회에서 합격 사례를 제공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사례는 일반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책자에 소개되지만 전체 전형 안내책자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대학에서는 따로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책자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대학마다 합격 사례를 게재하는 매체가 다르므로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는 입학처 발간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책자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안내 홈페이지 외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하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중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사례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워크숍, 자기소개서 특강 등의 프로그램 내용에 합격 사례 발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 사례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학생·교사·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므로 일반화하여 이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학생이 주어진 교육 환경에서 진로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성장한 과정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Part5. 합격사례

학생부종합전형에 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후 고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됨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설명하였듯이 고교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해서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학생참여형 수업을 통해 수업-평가-기록 일체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주도적,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참여형 수업은 발표, 토론, 주제탐구, 글쓰기, 실험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의 변화는 평가 방식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수업에서 학생의 활동과 변화, 성장, 산출물 등의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과정중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습, 개방형 교육과정 등의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참여형 수업이 증가하면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창의성이나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 방법 모색 등 다양한 역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준비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학생이 수업에서 다루었던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심화·발전시킨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내용이 더 풍부해집니다.

다음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별화된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했는가는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임원 선거, 학급회, 명사초청 강의 등의 내용보다는 개별 학생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개별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만의 노력과 활동, 성취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나타나있지 않다면 평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 개개인의 성취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Part5. 유사도

유사도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유사도 검증은 학생부위주전형 지원 서류인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표절, 대필 및 허위 서류 작성 등을 방지하고 지원 서류 검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통의 검색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지원자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누적된 대학 내/대학 간 유사도를 검색 및 비교하여 동일 단어와 동일 문장의 반복과 빈도 위치, 행의 배열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각 대학에 제시합니다. 동일한 문장에서 단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문장 구조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표절 문장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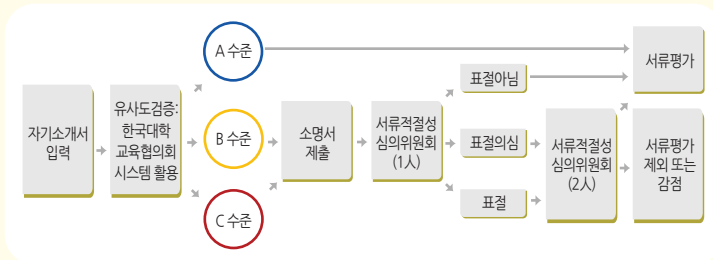
유사도는 지원 서류의 유사도 최대값 수준에 따라서 A수준, B수준, C수준으로 구분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개한 ‘서류검증시스템 검색 결과 예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유사도 구분 |

유사도 구분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A수준(Blue zone)	5%미만	20%미만
B수준(Yellow zone)	5%이상~30%미만	20%이상~50%미만
C수준(Red zone)	30%이상	50%이상



| 자기소개서 유사도 수준별 처리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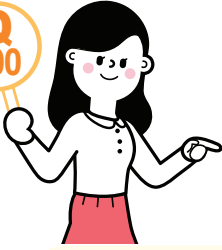
대학은 유사도 검색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검증 절차를 두어 평가에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사도 A수준 구간은 통상적인 서류 평가를 진행하고 B수준 및 C수준 구간에 속한 지원 서류에 대해서는 작성자 본인 소명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명자료 제출, 유선 확인, 현장실사, 심층면접, 재학 또는 출신 고등학교의 교사 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 내용의 진위 및 고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확인 결과를 3단계(표절아님, 표절의심, 표절)로 구분하여 표절의심 및 표절이 확실시되는 경우, 사전에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에 게재된 처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유사도 B수준 및 C수준 지원자에 대해서는 확인 방법 및 합격여부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제출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입시 종료 후에도 지원 서류를 재검증하며 이러한 사후 검증 결과 표절이 발견되면 입학 이후라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도가 높은 교사추천서에 대해서는 작성자인 교사와 해당 학교에 알려 추후 서류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니다.

Q
100



Part5. 유사도

수시모집 지원 시, 한 대학에 제출한 자기소개를
다른 대학에 똑같이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A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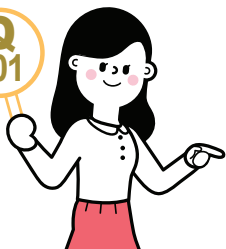
지원자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라면 복수의 대학에 같은 내용을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사도 검색 시스템에서 자기소개서 검색의 기준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유사도 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대학 유사도 검색 결과, 유사도가 높게 나온 지원자들 중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유사도 검색 시스템의 ‘동일인 의심자 처리 신청’을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담당자가 동일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실수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 하더라도 동일인 확인 처리 후에 해당 자기소개서를 유사도 검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유사도 검색 시스템에서는 당해 연도 지원자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누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도 검증을 실시하는데 이전 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의 경우 전년도 자기소개서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여도 동일인 자기소개서이므로 유사도 검증 대상이 아닙니다. **유사도 검증 시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의 자기소개서와 타인의 자기소개서 문장이 유사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 작성 시 단문보다는 복문으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작성한다면 타인의 문장과 비슷해지기 어려우므로 유사도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따라 모집단위, 인재상 등이 다를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과 관련해서는 복수의 대학에 같은 내용을 제출해도 괜찮지만 지원 모집단위가 상이하다면 지원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 지원 대학명을 잘못 기록하는 등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년 간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교육 기관 컨설팅을 통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비용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부작용만 일으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101

Part5. 기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A
101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며 학생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들은 대학에 와서도 대부분 다방면으로 우수한 성취를 나타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부종합전형 3년의 성과와 고교 교육의 변화」 심포지엄의 ‘서울 10개 사립대학 입시 결과 및 입학생 대학생활 적응도 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2017학년도 서울 10개 대학(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입학생 33,243명의 대학입학 전형별 대학 생활 적응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들은 학업성취도(GPA) 및 학교생활 만족도 등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자퇴를 포함한 중도탈락률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들이 타 전형 입학생에 비해 대학 생활에 대한 적응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각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입학생 중단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보다 성공적인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 고른기회 입학생(농어촌전형, 기회균형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등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업지원을 중심으로 추수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입학 전형과 관계없이 기초필수과목을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보충교육 및 선수강 교육 지원, 재학생 1대1 학업 멘토링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

학생부종합전형

101

가지

이야기



연구협력진

협력진 (가, 나, 다 순)

강경진(서강대학교)

기대연(현일고등학교)

김선영(대구광역시교육청)

박상용(전주영생고등학교)

배동열(명문고등학교)

여운관(대전괴정고등학교)

이교혁(춘천교육대학교)

이환필(김해가야고등학교)

주보은(풍암고등학교)

천성원(성도고등학교)

강세웅(임실고등학교)

김겸훈(한남대학교)

김영배(송실대학교)

박재현(진해여자고등학교)

신 석(한양대학교)

오정훈(제주여자고등학교)

이대희(국민대학교)

장진호(서림고등학교)

진수환(강릉명륜고등학교)

최미정(고려대학교)

권순관(창원중앙고등학교)

김복렬(대전만년고등학교)

박동훈(강원대학교)

박진형(창원중앙고등학교)

안효경(서울여자대학교)

유은선(충북대학교)

이완구(충남교육연구정보원)

조만기(판곡고등학교)

채현서(봉담고등학교)

최영진(금촌고등학교)

발행일 2019. 2. 28

발행처 건국대학교

문의 02-450-4275 건국대학교 입학전형센터

• 제작 _ 디자인여름 (02-421-1452)

A purple speech bubble with a white outline, containing white Korean text. The bubble has a small tail pointing towards the top-left.

학생부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